

# 캄보디아 개황

---

2019. 11



Cambodia

Phnom Penh

## 캄보디아 국기



- 가운데 백색 그림은 캄보디아의 대표 문화유적 앙코르와트를 형상화한 것이며, 찬란한 크메르 문화와 부를 나타낸다.
- 바탕에 쓰인 적색은 불의에 대한 투쟁과 강인한 캄보디아의 정신을, 청색은 캄보디아의 농업과 환경을 상징한다.

# 캄보디아 개관

## 가. 일반

국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수도	프놈펜 (Phnom Penh : 인구 220만 명, 면적 678km <sup>2</sup> )
면적	181,035km <sup>2</sup> (남한의 1.8배, 한반도 전체의 약 80%) • 남북 450km, 동서 580km, 해안선 340km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 (베트남·라오스·태국과 접경) • 동경 103-107°, 북위 10-14°
인구	약 1,625만 명 (2018, IMF)
인종	크메르족 97%, 소수민족(베트남·중국·참족·고산족)
언어	크메르어(90% 이상),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시차	-2시간 (우리나라보다 두 시간 느림)

## 나. 정치

정체	입헌군주국으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정부 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운영 • 국가원수 :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 ※ 2004년 10월 29일 즉위 • 정부 수반 : 훈센(Hun Sen) 총리(캄보디아국민당 소속)
정치 형태	의원내각제
의회	양원제 • 국회(National Assembly) 125석 (임기 5년) • 상원(Senate) 62석 (임기 6년)

## 다. 경제 (2018, IMF)

GDP	245억 달러
1인당 GDP	1,509달러
실질 GDP 성장률	7.25%
물가상승률	2.4%
총 교역액	319.3억 달러
무역	수출 : 123.7억 달러 수입 : 195.6억 달러
환율	1달러=4,051리엘 (2018년 평균, 세계은행)

## 라. 기타

국경일	11월 9일 (독립기념일)
기후	열대몬순, 고온다습 (계절 및 지역에 따라 상이) • 3~5월 : 북서풍, 고온건조 (최고 기온 35~45°C) • 6~8월 : 남서풍, 고온다습 • 9~11월 : 다습 (우기) • 12~2월 : 건조 (최저 20~최고 30°C)
종교	불교(95%), 기타(5%)

## 연표로 본 캄보디아 역사



캄보디아국 시대  
(1989~1993)

1989

● 캄보디아국민혁명당,  
나라명을 캄보디아국으로 바꾸고  
탈공산주의 추진(4월)

● 베트남군 철수(10월)

1990

● 유엔 안보리,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1991

● 파리평화협정 서명

캄보디아 왕국 시대  
(1993~현재)

1993

● UN 주관 하에 1차 총선 실시,  
제헌의회 소집, 헌법 공포

1997

● 라나리드 제1총리와 훈센 제2총리 간  
무력충돌

1998

● 2차 총선 실시, 훈센 단독 총리 취임

1999

● 아세안 가입 / 제1기 상원 개원

2002

● 제1대 기초 행정구역 평의회 선거

2003

● 3차 총선 실시 / 제3기 연립정부 수립

2004

● ASEM 가입

2006

●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 출범

2008

● 4차 총선 실시 / 국민당 압승 /  
제4기 정부 수립

2013

● 5차 총선 실시 / 제5기 정부 수립

2018

● 6차 총선 실시 / 국민당 압승 /  
제6기 정부 수립

# 목차

## I. 역사

- 1. 고대 및 식민지 시대 12
- 2. 캄보디아 공화국 및 왕국 시대 13

## II. 정치

- 1. 정치 체제 18
- 2. 정부 19
- 3. 의회 20
- 4. 정당 24
- 5. 지방 정부 27
- 6. 사법 제도 28
- 7. 군사 29
- 8. 주요 정세 31

## III. 외교

- 1. 개관 44
- 2. 주요 외교 사안별 입장 46
- 3. 지역 협력 48
- 4. 다른 나라와의 관계 50
-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60
- 6. 주요 협정 체결 현황 62
- 7. 수교 및 공관 설치 현황 63

## IV. 경제

1. 개 관 66
2. 경제발전 전략 68
3. 경제 현황 70
4. 무역 동향 76
5. 투자 환경 79

## V. 사회·문화

1. 사회 일반 86
2. 교육 87
3. 치안 88
4. 교통 및 통신 89
5. 언론 91
6. 보건 92

## VI. 개발협력

1. 개 관 94
2. 연혁 95
3. 개발협력 실행 계획 96
4. 주요 원조공여국 지원 동향 99

## VI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102
2. 조약 체결 현황 104
3. 주요 인사 교류 106
4. 정치·외교 관계 110
5. 경제·통상 관계 113
6. 개발협력 관계 120
7. 영사·문화 관계 124

## VIII.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134
2. 최근 동향 135
3. 주요 인사 교류 136
4. 경제협력 관계 137

## 부 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140
2. 제6기 내각 명단 145
3. 캄보디아 공휴일 150
4.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151
5.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151

# I

---

## 역사

---

- 
1. 고대 및 식민지 시대
  2. 캄보디아 공화국 및 왕국 시대

K I N G D O M O F C A M B O D I A

## 1. 고대 및 식민지 시대

### 가. 고대~앙코르 왕조(~1863)

- 1세기부터 6세기경까지 메콩 델타 유역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후난(Funan) 왕조와 첸라(Chenla) 왕조 존재
- 802년 자야바르만(Jayavarman) 2세가 스스로 신왕(神王)으로 칭하고 앙코르 왕조를 열어 1431년 시암(현 태국)의 침략으로 쇠퇴할 때까지 크메르 민족의 전성기(고대 크메르 왕국 시대) 구가
- 1431년 시암의 침략 후, 19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까지 시암과 베트남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왕국의 명맥만 유지

### 나. 프랑스 통치 시대(1863~1953)

- 1863년 캄보디아는 시암과 베트남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자진해서 프랑스 보호령으로 편입
- 1884년 노로돔(Norodom) 국왕은 프랑스의 강압으로 명목상의 왕위만 유지하고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는 협정에 서명

## 2. 캄보디아 공화국 및 왕국 시대

### 가. 시하누크 시대(1941~1970)

- 1941년 프랑스는 당시 19세의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를 왕으로 즉위시켰으나, 시하누크는 1945년 일본의 후원 하에 독립 선언
- 일본이 패전한 후 프랑스가 지배권을 회복하였으나, 1953년 11월 시하누크에게 군사·사법·외교권을 허용, 사실상 독립
- 1955년 시하누크 국왕은 현실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아버지 수라마리트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인민사회주의공동체당(Sangkum Reastr Niyum) 총재에 취임, 같은 해 총선에서 압승하여 1970년까지 캄보디아 정국 주도

### 나. 크메르공화국 시대(1970~1975)

- 1970년 3월 28일 시하누크 공의 외유 중에 론놀(Lon Nol)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 시하누크를 모든 공직에서 축출하고 귀국 불허
- 1970년 4월 10일 크메르공화국 수립 선포
- 론놀은 반정부세력을 공산주의자로 간주해 탄압, 크메르루즈의 성장 초래

### 다. 민주 캄푸치아 시대(1975~1978)

- 1975년 4월 17일 폴포트(Pol Pot)가 이끄는 캄푸치아공산당(크메르루즈, Khmer Rouge)이 프놈펜에 입성, 급진혁명 추진
- 1978년 12월 베트남군이 무력으로 캄보디아 침공

## 라.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시대(1979~1989)

- 1979년 1월 친베트남 세력인 헝삼린(Heng Samrin), 체아심(Chea Sim), 훈센(Hun Sen) 등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연합군이 프놈펜에 입성,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수립
- 1989년 10월 소련·동구권 몰락과 캄보디아 운영의 경제적 부담, 국제 사회 비난에 따라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서 철수

## 마. 캄보디아국 시대(1989.4.~1993.5.)

- 1989년 4월에 캄보디아 국민혁명당은 국명을 캄보디아국(State of Cambodia)으로, 당명을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으로 바꾸고 사유재산 인정, 민영화 추진 등 탈공산주의 추진
- 1990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 1990년 10월 4개 정파, 최고국가평의회(SNC) 구성에 합의
- 1991년 10월 캄보디아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파리평화협정 서명,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 Transitional Authority of Cambodia, UNTAC)와 최고국가평의회(SNC)에 18개월 동안 통치권을 위임하고, 총선을 통한 신정부 구성 추진
- 1992년 3월 총 45개 국 2만 2천 명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이 파병되어 정전협정 준수 여부 감시

## 바. 캄보디아 왕국 시대(1993.5.~현재)

- 1993년 5월 23~28일간 UNTAC 주관 하에 1차 총선거 실시
- 1993년 6월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헌법을 채택하고(1993.9.23 공포), 시하누크를 국가수반으로 선출, 캄보디아 왕국 시대 출범(1993.9.24 시하누크 국왕 즉위)

- 1993년 총선 결과, 훈신펙당과 캄보디아국민당 간 연정이 구성되어, 훈신펙당 라나리드(Norodom Ranariddh) 왕자가 제1총리, 캄보디아국민당 훈센이 제2총리에 취임
- 1998년 7월 2차 총선 결과에 따라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으로, 훈센 캄보디아국민당 부총재를 총리로 하는 제2대 국회 및 제2기 연립정부 출범
- 2003년 7월 3차 총선 이후 1년간 새 정부 구성이 지연되다가, 2004년 7월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으로, 훈센 캄보디아국민당 부총재를 총리로 하는 제3대 국회 및 제3기 연립정부 출범
- 2008년 7월 4차 총선에서 캄보디아국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90석의 의석을 획득하고 제4대 국회 및 제4기 연립정부(훈신펙당 연립) 구성
- 2013년 7월 5차 총선에서 캄보디아국민당이 승리하였으나 의석 수가 대폭 감소(68석)한 반면, 야당인 구국당(CNRP)은 55석을 차지하며 약진
- 2014년 9월 국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하고 신정부 출범
- 이후 여야 영수 회담을 통해 야당 국회 등원 합의 등 여야 관계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여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회귀
- 2017년 6월 제4대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당 50.76%, 제1야당인 구국당 43.83%의 득표율로 선거구와 의석 수 면에서 국민당이 승리 하였으나, 2012년 지방선거와 같은 압도적인 승리(90% 이상 선거구에서 승리)는 거두지 못한바, ‘국민당의 절반의 승리, 구국당의 약진’으로 평가
- 2017년 9월 3일 구국당의 켄 소카(Kem Sokha) 대표가 모반 혐의로 체포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국당이 해산 되고 구국당 소속 주요 인사들에 대한 5년간의 정치활동 금지령 내려짐

- 2018년 7월 29일, 주요 야당(구국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비민주적 선거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치러진 6차 총선에서 국민당은 76.85%를 득표하며 국회의 전 의석(125석) 차지

# II

---

## 정치

---

1. 정치 체제
2. 정부
3. 의회(양원제)
4. 정당
5. 지방 정부
6. 사법 제도
7. 군사
8. 주요 정세

## 1. 정치 체제

### 가. 정체 : 입헌군주제

### 나. 국왕

- 현 국왕 :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 공식 명칭 : His Majesty Preah Bat Samdech Preah Boromneath Norodom Sihamoni, King of Cambodia
- 즉위일 : 2004년 10월 29일
- 시하누크 전 국왕은 2012년 10월 15일 서거
- 지위 및 권한
  - 국왕은 생존 기간에 국가원수 지위 유지하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에 따라 나라를 통치
  - 국회 동의에 따라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군인·대사·법관 임명에 대한 서명권, 군 최고통수권,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 서명 및 비준권 등 보유
- 승계
  - 국왕 사망 또는 퇴위 시 7일 이내에 ‘국왕 선출위원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단순 과반수로 후계자 선출
  - 국왕선출위원회 : 상원의장(위원장), 국회의장, 총리, 불교 종정(2명), 상원 부의장(2명), 국회 부의장(2명) 등 총 9명
  - 왕위계승 자격 : Ang Duong, Norodom 또는 Sisowath 왕가 출신의 30세 이상 남자 자손
  - 국왕 유고 또는 부재 시 상원의장이 국가원수직 대행

## 2. 정부

### 가. 형태 : 의원내각제

### 나. 내각

- 구 성
  - 총리, 부총리(10명), 선임장관(17명), 장관(29명)
- 임 명
  - 국왕은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2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제1당 인사를 총리 내정자로 지정
  - 총리 내정자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신임 투표 후 국왕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일괄 임명

### 다. 총리

- 현 총리 : 훈 센(Hun Sen)
- 공식 명칭 :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Cambodia

### 3. 의 회 (양원제)

#### 가. 국회(National Assembly)

-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선출하는 125명(6대 내각)으로 구성
- 각 정당이 25개 선거구별로 선정하는 후보 중에서 득표 수에 따라 의석 배분(지역적 비례대표제)
-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2/3 다수제 투표로 선출
- 현 국회의장 : Heng Samrin (캄보디아국민당 명예총재)
  - 제1부의장 : Nguon Nhel (캄보디아국민당)
  - 제2부의장 : Khuon Sodari (캄보디아국민당)
- 임기 : 5년(새 국회 개회 시 종료)
  - 전시에는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임기 1년 연장 가능
  - 총선거 실시 후 60일 이내 개원
-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 임기 종료 6개월 전 실시(선거 일자는 총리가 결정)
  - 단, 12개월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내각이 불신임되고 총리의 제안과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왕이 국회를 해산하고, 해산 후 60일 이내 선거 실시
- 국회 약사
  - 1993년 5월 1차 총선 결과 훈신펙당 58석, 국민당 51석, BLDP(불교자유민주당) 10석, 몰리나카당 1석 획득(총 120석으로 제헌국회 구성)
  - 1998년 7월 2차 총선 결과 국민당 64석, 훈신펙당 43석, 삼랑시당 15석 획득(총 122석으로 국회 구성)

- 2003년 7월 3차 총선 결과 국민당 73석, 훈신펙당 26석, 삼랑시당 24석 획득 (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2008년 7월 4차 총선 결과 국민당 90석, 삼랑시당 26석, 인권당 3석, 라나리드당 2석, 훈신펙당 2석 획득(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2013년 7월 5차 총선 결과 국민당 68석, 구국당 55석 획득(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 2018년 7월 6차 총선 결과 국민당 125석 전석 획득
- 차기 국회의원 선거는 2023년 예정

### 2018년 7월 29일 총선 결과

정 당	총 득표수	%	의석 수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4,889,113	76.85	125
훈신펙당(FUNCINPEC Party)	374,510	5.88	-
민주리그당(League for Democracy Party)	309,364	4.86	-
크메르의지당(Khmer Will Party)	212,868	3.35	-
크메르국가통합당(Khmer National United Party)	99,377	1.56	-
풀뿌리민주당(Grassroots Democratic Party)	70,567	1.11	-
기타 (14개 야당)	406,442	6.39	
합 계	6,362,241	100	125

※ 집권여당인 국민당(CPP)과 19개의 야당 포함 총 20개 정당이 총선에 참여

※ 전체 유효표 : 6,362,241표, 총 투표율 : 83.02%

•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명칭
인권·소송·수사·상하원조정위원회	Pa Socheat vong (빠 소찌웃 봉)	제1위원회
경제·재정·금융·감사위원회	Cheam Yeap (찌음 이음)	제2위원회
기획·투자·농업·농촌개발·환경·수자원위원회	Chea Vandet (찌어 반뎃)	제3위원회
내무·국방·인사위원회	Hun Neng (훈 넝)	제4위원회
외교·국제협력·정보미디어위원회	Chheang Vun (치응 분)	제5위원회
입법·사법위원회	Paen Panha (빠엔 반냐)	제6위원회
청소년·교육·체육·종교·문화·관광위원회	Hun Mani (훈 마니)	제7위원회
보건·사회·퇴역군인·청소년갱생·직업훈련위원회	Laok Kheng (라웃 켝)	제8위원회
공공사업·운송·교통·정보통신·산업무역·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위원회	Nin Saphon (닌 사퐁)	제9위원회
반부패수사위원회	Paen Simon (빠엔 시몬)	제10위원회

나. 상원(Senate)

- 1999년 3월 상원 신설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122명 중 111명 출석, 찬성 106명, 반대 5명으로 국회 통과  
- 1999년 3월 25일 상원 개원
- 상원은 40세 이상 6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 62명(4대 상원,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으로 구성

- 국민의 직접 선출이 아니라 면(commune) 평의회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각 정당별 총 유효득표 수에 따라 58명을 선출하고 국회 및 국왕이 각각 2명씩 지명하여 총 62명으로 상원 구성
- 상원은 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며, 상원의장은 국왕 부재 시 국가원수의 역할 대행
- 현 상원의장단
  - 의 장 : Say Chhum (캄보디아국민당)
  - 제1부위원장 : Sum Ka (캄보디아국민당)
  - 제2부위원장 : Tep Ngorn (캄보디아국민당)
- 상원 역사
  - 제1기(1999~2005) : 상원은 정당별 국회 의석 비례에 따라 CPP 31석, 훈신펙당 21석, 삼랑시당에 7석을 배정하고, 국왕이 2명을 지명하여 총 61명으로 구성
  - 2006년 1월 제2기 상원의원 선거 결과 CPP 45명(74%), 훈신펙당 14명(23%), 삼랑시당 2명(3%) 당선
  - 제3기(2012~2018) : 상원은 CPP 46명, 삼랑시당 11명 당선자와 국왕이 임명한 2명, 국회 지명 2명 총 61명으로 2012년 3월 24일 출범
  - 제4기(2018~2024) : 상원은 CPP 소속 58명 당선자와 국왕이 임명한 2명, 국회 지명 2명 총 62명으로 2018년 4월 23일 출범

## 다. 입법 절차

- 캄보디아의 법률 제정은 정부 발의 법안과 국회 발의 법안으로 대별
- 정부 발의 법안(Draft Legislation)의 입법 과정
  - 부처에서 법령안 입안 → 부처 내 입법검토위원회 검토 → 법률전문가 위원회 심사 → 부처간 위원회 검토 → 각료회의의 검토 후 승인되면 총리가 국회의장에게 제출 → (이후 국회 제안 입법 절차와 동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제출 → 국회 상임위원회 → 국회 전문위원회 → 국회 심의·의결 → 상원의장에게 제출 → 상원 상임위원회 → 상원 전문위원회 → 상원 심의·의결 → 헌법위원회의 헌법성 검토 → 국왕 서명 후 발효

- 국회 발의 법안(Proposed Law)의 입법 과정
  - 하원(국회) 또는 상원에서 법률안 제안 → 법률전문가위원회의 심사 → 국회의장에게 송부 → (이후 정부 발의 입법 과정과 동일)
  - ※ 단, 상원에서 반대 의견 있을 경우, 하원(국회)으로 송부 → 하원 재검토 → 상원 재검토 → 헌법위원회 → 국왕 서명 후 발효
  - ※ 국왕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없으며, 법안 서명 보류 불가

## 4. 정당

### 가. 개요

- 1997년 캄보디아 정당법 제정(10.28 국회 통과, 11.18 상원 통과)
- 1998년 2차 총선 당시 총 39개 군소정당 총선 참여
- 2008년 제4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캄보디아국민당(CPP), 훈신펙당, 삼랑시당, 인권당, 라나리드당 등 5개
- 2013년 제5대 선거를 앞두고 삼랑시당과 인권당이 통합된 캄보디아 구국당(CNRP)이 만들어져 여당 국민당(CPP)와 함께 양당 구도 형성
- 2018년 제6대 총선에 구국당(CNRP)이 해산(2017.11.)된 가운데, 국민당과 19개의 소수 야당이 참여하였으며, 국민당이 국회 의석 전석 차지

## 나. 주요 정당

### (1)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

- 캄푸치아 국민혁명당(Kampuche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의 후신
- 임 원
  - 총 재 : 훈센(Hun Sen) 총리
  - 부총재 : 사켝(Sar Kheng)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사이츨(Say Chhum) 상원의장
  - 명예총재 : 헝삼린(Heng Samrin) 국회의장

### (2)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CNRP)

※ 2017년 11월 해산

- 2012년 삼랑시당과 인권당이 통합된 정당으로, 2017년 9월 켄소카(Kem Sokha) 당 총재가 반역죄로 긴급체포되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정부 전복죄 혐의로 당 해산 및 118명 당원의 정치활동 금지 판결
- 구국당 지지자들은 2018년 1월 삼랑시 전 구국당 총재를 주축으로 미국에서 캄보디아구국운동(Cambodian National Rescue Movement, CNRM)을 설립하여 켄소카 총재의 반역 혐의 취하 및 정치활동이 금지된 구국당 인사들의 정계 복귀를 위해 투쟁 중
- 임 원
  - 총 재 : 켄소카(Kem Sokha, 현재 가택연금 중)
  - 총재 대행(2018.12. 선출) : 삼랑시(Sam Rainsy) CNRM 총재
  - 부총재 : 뿔 함(Pol Ham), 무 속후아(Mu Sochua),  
앵 차이 이응(Eng Chhay Eang)



## 5. 지방 정부

### 가. 행정구역

- 전국을 24개 주 및 1개 수도(프놈펜)로 나누고 그 아래에 시·군·구가 있으며, 다시 면과 동으로 구분

※ 수도 및 각 주 이하 행정구역 단위

- 프놈펜 : 구(khan) - 동(sangkat) - 촌(village/phum)
- 주(Province) : 군(district/srok) - 면(commune/khum) - 촌(village/phum) - 시(municipalities) - 동(sangkat) - 촌(village/phum)

### 나. 지방선거

- 지방정부 책임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여 왔으나, 지방의회 선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2월 최초로 대도시의 동과 각 주의 면 평의회에 대한 지방선거 실시(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
  - 1,621개의 면에서 인구에 따라 5~11명의 평의원이 선출되고, 최다 득표 정당이 해당 후보자 명부에서 면장 겸 평의회 의장을 지명
  - 상위 행정구역 ‘주, 수도-시, 군, 구’ 평의회 선거는 미실시
- 2008년 4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2009년 5월 ‘주, 수도-시, 군, 구’ 평의회에 대한 선거를 실시
  - ‘주, 수도-시, 군, 구’ 평의회 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닌 동/면 평의회 의원 등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 2014년 5월 18일 제2대 시군구 및 도의회 선거 실시
  - 결 과 : 캄보디아국민당 2,540석 (76.4%)  
          캄보디아구국당 765석 (23.6%)
  - 도 의회 : 캄보디아국민당 306석, 캄보디아구국당 86석, 훈신펙당 1석

- 시·구·군 의회 : 캄보디아국민당 2,234석, 캄보디아구국당 679석,  
훈신펙당 17석 및 민주연맹당 1석
- ※ 2017년 11월 구국당 해산 후, 구국당의 765 의석은 국민당에게 717석,  
훈신펙당에게 48석 배분
- 2017년 6월 4일 4대 지방선거 실시
  - 1,646개의 면/동 선거구에서 11,527명의 지방의원 선출
  - 여당인 국민당이 1,156개 선거구에서 다수당을 차지(총 의석 수 6,503석),  
제1야당인 구국당이 489개 선거구에서 다수당 차지(총 의석 수 5,007석)
  - ※ 2017년 11월 구국당 해산 후 구국당의 총 의석 5,007석 중 4,548석은 국민당에,  
239석은 훈신펙당에, 나머지 의석들은 지방선거 당선 순위대로 소수여당에 배분

## 6. 사법 제도

- 기존 법률 중 신법에 저촉되거나 무효로 되지 않은 법률은 유효
  - 1989년 이전 법률은 거의 사문화
  - 1989~1993년 UNTAC 통치 당시 프랑스 시민법을 모델로 제정한  
법령은 대체로 시행
- 3심제 채택 및 운영
  - 지방법원 : 프놈펜과 각 주에 설치
  - 고등법원·대법원 : 프놈펜에 설치
- 국왕이 주재하는 최고사법위원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법부가 사실상 행정부(법무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평가

- 최고사법위원회가 모든 법원의 판사 및 검사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사법제도 관련 법안 심의 권한을 보유
- 위원(11명) : 법무장관, 대법원장, 대법원 검찰총장,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또는 관련 분야 최소 15년간의 경력자 중 상원에서 1명 지명, 하원에서 1명 지명, 헌법위원회에서 1명 지명, 법무장관이 검사들 중 1명 지명, 고등법원 법관 중 1명 선출, 대법원 소속 검사 중 1명 선출, 지방법원 대표 1명, 지방법원 소속 검사 중 1명 선출
- 헌법위원회는 하위법의 위헌 여부만을 심사하나, 선거 관련 분쟁(부정 선거 등)은 헌법위원회가 최종 판결 가능

## 7. 군사

- 캄보디아의 군사 조직은 육·해·공군, 헌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병력 수는 약 현역 12만 명(예비군 70,000명)으로 전 세계 102위 수준 (2018년 통계)
  - 군 총사령관 : Gen. Vong Pisen
  - 육군참모총장 : Lt.Gen. Hun Manet (중장, 훈센 총리의 장남)
  - 해군참모총장 : Gen. Teah Vinh (대장, 띠오반 국방장관의 동생)
  - 공군참모총장 : Gen. Soeung Samnang (대장)
  - 헌병사령관 : Gen. Sao Sokha (대장)
- 1999년 1월 훈센 총리는 시하누크 국왕에게 군·경찰 조직 축소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자신의 군 최고사령관직 사임을 건의하였고 국왕이 인사 칙령에 서명함으로써 군 최고사령관직에서 퇴임
  - ※ Ke Kim Yan 중장이 대장으로 승진, 군 최고사령관직을 수행했으나 2009년 1월 경질

- 1996~1998년 총 3만 1,500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1999년 12월까지 병적 카드 작업 완료
  - 병적에 등록된 총 14만 693명에게 ID 카드를 발급하고, 1만 5,551명의 유령 병적과 16만 3,346명의 유령 근가족 삭제
- 1999년 5월 캄보디아 군개혁위원회 설치, 5년간 약 5만 5,000명의 추가 병력 감축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감군을 추진하였으나 제대자 퇴직수당 및 직업훈련 예산 부족으로 2003년 이후로는 병력 감축 연기
- 국방 예산은 2018년 5억 4,200만 달러 규모
- 대외적으로 캄보디아군은 UN 평화유지(PKO) 활동에 적극 참여 중
  - 2006년부터 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
  - 2018년 12월 기준 중앙아프리카공화국(228명), 말리(311명), 다르푸르(3명), 레바논(184명), 남수단(88명)에 811명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유지
- 2010년 이래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캄보디아군 공동 주관으로 캄보디아에서 합동군사훈련 Angkor Sentinel를 실시 중이었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2017~2018년간은 선거 준비 등을 이유로 동 훈련을 중단하였으며, 중국과는 매년 Golden Dragon 훈련 실시
  - 최근 인권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캄보디아-미국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

## 8. 주요 정세

### 가. 1차 총선과 제1기 연립정부(1993.9. ~ 1998.7.)

- 1993년 5월 23~28일간 UNTAC의 주관 아래 470만 명의 등록 유권자 중 90%가 투표에 참여, 1차 총선거 실시
  - 국회 120개 의석 중 훈신펙당이 58석(45.47%), 국민당이 51석(38.23%) 차지
  - 크메르루즈는 국민통합당을 구성했으나 선거에는 불참
- 1993년 6월 14일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시하누크를 국가수반(국왕)으로 선출
- 1993년 9월 23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9월 24일 시하누크 왕 즉위, 중앙과 지방의 모든 권력을 분점하는 독특한 연립정부 구성
  -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와 훈센 국민당 부총재를 공동 총리로 임명
- 1993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UNTAC 요원 캄보디아 철수
- 1994년 7월 2일 차크라폰 왕자(전 부총리)와 신송 前 내무장관이 연립 정부의 크메르루즈 유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하고 해외로 도피
- 1995년 11월 21일 시하누크 국왕의 이복동생인 시리부드 공(외교장관 역임)이 훈센 총리 암살미수사건에 연루되어 체포(프랑스로 망명)
  - 망명 중 권력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1996년 말과 1997년 4월 귀국을 시도하여 훈신펙당과 국민당 간의 무력시위로 위기 상황 초래

- 1997년 1월 라나리드 제1총리 및 훈센 제2총리가 각각 세력 확장을 위해 군소정당과의 제휴를 추진하면서 양 정파 간에 무력시위가 격화되는 등 정국 악화
- 1997년 4월 15일 훈센파당의 일부 중진 인사들이 라나리드 총재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불만을 품고 불신임 선언
- 1997년 4월 이래 국회 의정 활동이 중단되고 양 정파 간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던 중 1997년 7월 5~6일 훈센 제2총리와 라나리드 제1총리 간에 무력충돌 발생
  - 라나리드 제1총리 국외로 축출

#### 나. 2차 총선과 제2기 연립정부(1998.7.~ 2003.7.)

- 1998년 7월 2차 총선 결과, 국민당 64석, 훈센파당 43석, 삼량시당 15석 획득
- 1998년 11월 30일 훈센 당시 제2총리는 라이벌인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에, 자신은 단독 총리에 취임하는 연립정부를 출범 시켜(양당간 50:50의 권력 배분) 최초로 캄보디아 전역을 중앙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통치권 장악에 성공
- 1999년 3월 국회를 상원과 국회로 구성하는 헌법 개정과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과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국정 개혁과 경제발전 추구
- 대내적으로는 2002년 2월의 지방선거, 대외적으로는 2002년 제8차 아세안+3 정상회의와 2003년 제10차 ARF 및 아세안 PMC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내외적 안정과 발전 이룩
- 훈센 총리는 ▲평화 정착과 국내 정국 안정 ▲국제사회에의 편입 ▲경제 개발과 개혁을 통한 빈곤 타파라는 ‘삼각전략(Triangle Strategy)’ 정책

기조 하에, 혼신평당과 마찰 없는 연정 유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WTO 등 국제기구 가입 및 경제·사회 각 분야의 개혁 정책 추진

### 다. 3차 총선과 제3기 연립정부(2003.7. ~ 2008.7.)

- 2003년 7월 3차 총선 결과 국민당 73석, 혼신평당 26석, 삼랑시당 24석 차지
  - 국민당은 의석 수에서 혼신평과 삼랑시당의 합계(50석)를 훨씬 넘는 73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헌법 규정상 단독정부 구성에 필요한 총 의석 수의 2/3(82석) 확보에 실패
- 총선 결과 발표 후 혼신평당과 삼랑시당이 연대하여 민주연합(Alliance of Democrats) 결성, 혼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함에 따라 총선 이후 1년 가까이 새 정부 구성 지연
  - 2003년 9월 제3대 국회 개원식 개최(체아심 상원의장 주재, 혼신평당 및 삼랑시당 소속 의원 전원 불참)
  - 2003년 10월 제3대 국회의원 당선자 선서식 개최(당선자 123명), 전원 참석
- 2003년 11월 시하누크 국왕 주재 아래 3당 대표자회의에서 3당 연립정부 구성(총리 지명권은 국민당이 보유)과 라나리드 혼신평당 총재를 국회의장으로 임명한다는 차기 정부 구성 원칙에 합의
  - 민주연합측의 비협조로 새 정부 구성이 지연되자 시하누크 국왕은 혼선 총리의 총리직 계속 수행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신병 치료차 출국
- 2004년 6월 초 혼선 총리와 라나리드 혼신평당 총재 간의 여야 영수 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한 데 이어, 내각 구성을 위한 26개 부처 각료직 배분 및 연정 운영 방안 합의
  - 국회 원 구성 및 연립정부 내각 인준안 동시 표결
  - 체아심 국민당 총재는 상원의장, 라나리드 혼신평당 총재는 국회의장으로 추대

- 훈센 총리를 정부 수반으로 하는 국민당-훈신평당 간 연립정부 구성
- 복수장관제로 운영되는 내무·국방·재경부의 3개 특별부처를 제외한 23개 일반 부처는 국민당에서 14명, 훈신평에서 9명의 장관을 임명

- 2004년 7월 8일 여야 합의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국회 원 구성 및 내각 인준안 동시 표결에 관한 헌법 절차 마련
  - 양당 소속 전체 의원(99명) 중 96명 참석(삼량시당 소속 의원 24명은 전원 불참), 참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
- 2004년 7월 15일 국회 원 구성 및 내각 인준안 국회 통과, 제3대 국회 및 제3기 연립정부 공식 출범(총 26개 부처와 2개 외청)

#### 라. 4차 총선과 제4기 정부(2008.7.~ 2013.7.)

- 2008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소속된 국민당이 득표율 58.1%로 전체 123석 중 90석을 차지하는 압승
  - 최근 3개년간 평균 11%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내 경제 안정, 10개 야당이 선거에 참여한 데 따른 야당 분열, 각 지방까지 장악한 여당의 확고한 조직력, 프레아 비헤아 사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훈신평당은 기존 26석에서 2석만을 차지하는 참패를 하고, 삼량시당은 26석, 신생 정당인 인권당과 라나리드당이 각각 3석과 2석을 획득
- 총선 압승 이후 구성된 제4기 정부의 첫 각료회의(2008.9.)에서 훈센 총리는 지난 3기 정부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사각전략’ 2단계에 착수하여 지속적 경제발전 추진
  - ※ 사각전략은 66쪽 참고
- 2008년 7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당 중심의 친정 체제가 구축되면서 훈센 총리의 입지 더욱 강화

- 훈센 총리는 강력한 통치 스타일과 친기업 정책으로 캄보디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 달성

#### 마. 5차 총선과 제5기 정부(2013.9.~ 2018.7.)

- 2013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 국민당은 과반수 의석을 얻기는 했으나 의석 수가 68석으로 줄어든 반면, 통합 야당 구국당은 변화를 모토로 하여 55석을 차지하는 약진
- 선거 후 야당 구국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여, 국민당은 9월 23일 국회를 단독 개원하고 새 정부 출범
- 약 1년간의 여당 단독 국회 운영 후, 여야 영수회담(2014.7.22)에서 구국당이 국회 등원에 합의하여 2014년 8월 5일에 국회 정상화
- 2015년 하반기 이후 ▲캠소카 구국당 부대표 국회 부의장직 박탈 (2015.10.) 및 체포 시도(2016.5.) ▲삼랑시 구국당 대표 체포영장 발부 (2015.11.) ▲야당 의원 체포(2015~2016) 등 여야 정치적 갈등이 다시 심화
- 2017년 지방선거와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 정부가 국가 안보 저해, 국가 분열 초래 등 사유로 정당 해산을 가능토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여야 긴장 국면이 심화
- 미국·EU 등 서방측은 일련의 조치가 민주적 선거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캄보디아 정부측에 문제 제기

## 바. 제6차 총선과 제6기 정부 출범(2018.9.~2023.7.)

- 제1야당이었던 구국당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해산(2017.11.16)되면서 비민주적 선거라는 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서 2018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 국민당은 국회 총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
- 2018년 9월 5일 국회 개원, 9월 6일 제6기 정부 출범 및 훈센 총리 연임
- 훈센 총리는 비민주적 총선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완화하고자, 여·야·정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최고자문위원회’를 창립(9.9)하여, 야당의 국정 참여를 유도
- 2017년 9월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된 켄소카 구국당 총재는 2018년 9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되어 현재 가택연금 중
- 제6대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일부 야권 인사 및 인권운동가 석방, 정당법 개정(2019년 1월 국왕 재가, 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던 118명의 前 구국당 인사들의 정계 복귀 가능성 확보) 등 유화적 조치 시행
- 2019년 8월, 구국당 대표대행 삼랑시와 지도부는 2019년 11월 9일 (캄보디아 독립기념일)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여당측은 주변국에 삼랑시 경유 금지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구국당 지지파를 체포하는 등 갈등 지속

## 사. 주요 이슈

### (1) 크메르루즈 문제

#### 크메르루즈의 와해

- 크메르루즈는 시하누크 주도의 망명정부(1982), 파리평화협정(1991)에 참여했으나, 1993년 1차 총선에는 불참
- 시하누크 국왕은 크메르루즈에 무조건 휴전을 제안하고, 1994년 5월과 6월에 각각 평양과 프놈펜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하는 데 실패
- 1994년 7월 캄보디아 의회는 크메르루즈를 대학살 책임자, 범죄 집단, 불법단체로 공식 규정  
※ 1994년 7월 11일 크메르루즈는 자체 정부 수립 발표
- 1996년 중반까지 크메르루즈는 캄보디아 북서부 태국 접경 밀림지대로 잠입하여 그 지역 일대의 보석과 목재를 태국으로 밀수출한 재원으로 무력 저항 계속
- 1996년 2월 이래 국민적 화해를 위한 정부측의 투항 유도 노력과 장기전에 염증을 느낀 크메르루즈 병사들이 계속 투항
- 1996년 8~11월 정부측과의 협상을 통해 크메르루즈 정권의 외교장관을 역임한 이엥 사리(Ieng Sary)가 약 2,400명의 크메르루즈와 함께 투항 - 정부측 사면 조치를 받은 이엥사리는 이후 현실정치 불참을 선언하고 정파 간 중립적 입장 유지
- 1998년 4월 폴포트 사망, 1998년 12월 키우삼판(Khieu Samphan)과 눈체아(Nuon Chea) 투항, 1999년 3월 타목(Ta Mok) 체포 및 잔여 크메르루즈 간부의 투항으로 크메르루즈 세력 와해

## 유엔에서의 논의 경과

- 1997년 6월 크메르루즈 내부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을 때, 라나리드 제1총리와 훈센 제2총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크메르루즈 지도자 재판 실시에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
  - 1997년 7월 무력충돌 사태 이후 크메르루즈에 대한 재판 추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크메르루즈 붕괴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크메르루즈 지도자에 대한 재판 실시를 강력히 요구
- 1999년 3월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전문가위원회가 임시국제재판소 설립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채택 무산
- 1999년 6월 훈센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특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외국인 판·검사 일부 총원 등 국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추진 제시
- 1999년 5월 토머스 햄마버그(Thomas Hammberg) 유엔 사무총장 인권특사가 훈센 총리를 면담하고, 유엔 법률전문가 파견 및 캄보디아 국내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 협의
- 1999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랄프 재클린(Ralph Zacklin) 유엔 법률담당 사무차장보를 단장으로 하는 유엔 대표단이 캄보디아 방문
- 2000년 2월 유엔 사무총장은 혼합법원을 구성하되, 재판소 운영에 관해 “ ▲ 과반수의 외국인 판사 참여 ▲ 독립적인 국제검사 기용 ▲ 재판부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전원 체포 ▲ 사면이 기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4대 원칙을 캄보디아 정부에 제시. 그러나 훈센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우호국 출신 검사가 참여하는 국내 재판정 구성 방안을 제시
- 2000년 7월 한스 코렐(Hans Corell) 유엔 사무차장보와 소칸(Sok An) 캄보디아 국방장관, 크메르루즈 지도자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사법부 내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와 캄보디아 국내법 초안 작성
  - 양해각서(안)에 재판관·검사·행정직원 임명 절차 및 국제재판관 등에 부여할 특권 면제, 유엔과 캄보디아 간 재정 분담에 관한 규정도 포함
- 2000년 12월 캄보디아 정부가 크메르루즈 재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2001년 10월 캄보디아는 일반적으로 재판소 설립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유엔 측에 통보
  - 2002년 2월 유엔은 재판소 설립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상 중단을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훈센 총리는 유엔 사무총장 앞 교섭 복귀 희망 서한 송부

## 크메르루즈 지도자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과 재판 진행

- 2002년 8월 유엔 사무총장은 캄보디아 정부와 특별재판소 건의 지속적 협의를 위해서는 유엔 총회나 안보리의 명확한 위임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며, 2002년 11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위임권을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
  - 한국·일본·프랑스·호주·캄보디아 등 15개국 공동제안(컨센서스로 채택)
- 2003년 1월 소칸 관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대표단이 유엔을 방문, 유엔 및 캄보디아 정부 간 관련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
- 2003년 3월 유엔 대표단이 캄보디아 방문, 크메르루즈 전범 기소에 관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 간 협정 문안에 합의
- 2003년 6월 6일 캄보디아 국내법에 의한 크메르루즈 전범 기소에 관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 간 협정 체결
- 크메르루즈 전범 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정 내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캄보디아 국내법 제정
  - 2004년 10월 5일 국회 통과, 8일 상원 통과
- 2006년 7월 3일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정식 출범 및 4개 사례 재판 계획
  - Case 001 : 깡 썩 이우(Kaing Guek Eav, 일명 Duch, 투슬랭 감옥 소장)
  - Case 002 : 크메르루즈 최고지도자 4인(Nuon Chea 부서기장, Ieng Sary 외교장관, Ieng Thirith 사회장관, Khieu Samphan 정부수반)
  - Case 003(Meas Muth)과 Case 004(Yim Tith), Case 004/01(Im Chaem), Case 004/02(Ao An) : 크메르루즈 중견 간부
- 재판 진행 동향과 전망
  - Case 001은 항소심에서 2012년 2월 깡 썩 이우 소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재판 종료
  - Case 002는 01과 02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Case 002/01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7일 피고 키우삼판과 눈체아에 대해 종신형(최고형)을 선고하였고, 최고 재판부의 상소심(2016.11.23)에서 종신형 확정
  - Case 002/02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시작된 증거 수집 공판을 통해 2016년 3월 까지 증인 76명, 시민단체 38명, 전문가 3명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증거 수집 공판은 2016년 3사분기까지 지속
  - 2018년 11월 16일 개최된 판결 선고에서 키우삼판과 눈체아에게 종신형이 선고 되었으나 두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2019년 8월 눈체아가 사망하면서 현재는 키우삼판에 대한 상소심 절차 진행 중

- Case 003(Meas Muth)에 대해 합동수사판사실의 국내/국제 합동수사판사는 각각 기각/기소 결정문을 2018년 11월 28일 제출하였으며, 현재 전심재판부에서 기소 여부 검토 중
- Case 004(Yim Tith)에 대한 수사 종결 명령은 2019년 2사분기 중 내려질 예정
- Case 004/01(Im Chaem)은 ECC의 인적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국제 합동 수사판사 양측으로부터 기각 결정(2018.6.28)
- Case 004/02(Ao An)에 대해서 합동수사판사실은 2018년 8월 16일 수사 종결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전심재판부에서 기소 여부 검토 중
-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는 예산 구조상 어려움(자발적 기여금에 의존)과 캄보디아 정부의 소극적 입장으로 앞으로도 재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주요 기여국(일본, 프랑스 등)은 재판 기간이 예상보다 과도하게 연장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입장 표명
  - 우리 정부도 매년 50만 달러의 기여금을 특별재판소 운영에 지원 / 2019년까지 총 512.5만 달러(제12위 재정기여국) 기여
    - ※ 정창호 재판관(2011.8.~2015.2.)에 이어 백강진 판사가 2015년 6월부터 전심재판부 (Pre-trial Chamber, PTC) 국제재판관직 수임 중

## (2) 무력충돌 사태

### 무력충돌 발생 배경

- 1997년 3~4월 훈실펍당 소속 의원 8명이 반(反) 라나리드를 선언, 라나리드 제1총리에게 정치적 타격 초래, 훈실펍당은 국회 다수당 지위 상실
- 1997년 6월 라나리드 제1총리와 혹룬디(Hok Lundy) 경찰청장 양측 경호원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양 정파 간 긴장 고조
- 1997년 7월 5일 양 정파 간 무력충돌 발생
  - 훈센 제2총리는 라나리드의 무기 불법 반입과 크메르루즈와의 불법 협상, 크메르루즈의 도심 투입 행위 응징을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훈실펍당은 라나리드가 아닌 다른 인사를 제1총리로 추대할 것을 촉구
- 무력충돌 발발 직후 일부 군인과 군복을 착용한 도적의 약탈이 자행되었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도심 질서는 곧 회복되고, 내무부 산하에 외국 투자업체의 약탈 보상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태국·말레이시아·호주·필리핀 등은 특별기 등을 이용하여 프놈펜 내 자국민 철수
- 수도권 지역은 곧 안정을 회복했으나 바탐방, 시엠립, 시하누크빌, 반테이 맨체이 지역 등에서 양 정파 간 소규모 분쟁 발생
- 1997년 7월 10일 캄보디아 정부는 내각회의 소집, 행정 업무 정상화
  - 1997년 7월 28일 외교단과 내·외신 기자 참관 하에 국회 개원
- 1997년 8월 6일 캄보디아 국회는 비밀투표로 훈싹당을 대표하는 제1총리로 응훗(Ung Huot) 외무장관 선출
  - 출석 의원 총 99명 중 찬성 86표, 반대 4표, 기권 6표, 무효 3표
- 1997년 8월 7일 체아심 국가원수대행은 신임 제1총리 최종 인준 절차인 칙령(Royal Decree)에 서명, 응훗 제1총리 겸 외무장관 정식 취임
  - ※ 2차 총선 후 1998년 11월 30일 총리에서 사임
-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응훗 제1총리에 대하여 헌법 규정 해석 문제와 함께 정통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1997년 8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체아심 국가원수대행, 훈센 제2총리 등과 시하누크 국왕을 알현, 국왕의 추인으로 해소



# III

---

## 외교

---

- 
1. 개 관
  2. 주요 외교 사안별 입장
  3. 지역 협력
  4. 다른 나라와의 관계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6. 주요 협정 체결 현황
  7. 수교 및 공관 설치 현황

## 1. 개 관

- 역사상 빈번한 외침과 내란의 경험으로 캄보디아 헌법은 영구중립·비동맹 정책과 세계 모든 국가와의 평화공존을 대외정책 기조로 천명
  - 캄보디아의 중립성을 해하는 군사동맹 또는 군사협정 비가입
  - 캄보디아 영토 내 다른 국가의 군사기지 불허 및 유엔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자국 군대 해외 파병 금지. 단, 방위와 안보를 위한 군대 훈련 및 장비 지원 형태의 외국 원조는 수용
  - 핵무기,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사용 및 저장 금지
-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자 외교에 대한 지나친 편중과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 지역 및 국제사회 편입 지속적 추구
  - 유엔(1955), 아세안(1999), WTO(2004), ASEM(2004), 세계은행, IMF, 아세안 FTA 체결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에 가입
- 2002~2003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후, 2010년 CLV(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MV(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ACMECS(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Strategy, 에야와디-차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 전략체)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2012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여 아세안 내 캄보디아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2011년 최초로 개최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적극 지지하는 등 메콩 소지역 협력을 통한 후발 아세안 회원국의 개발 격차 해소 및 2015년 아세안 공동체 달성에 적극적 관심 표명
    - ※ 에야와디(Ayeyawady)와 차오프라야(Chao Phraya)는 각각 미얀마와 태국의 강(江) 이름
  - 훈센 총리는 한·메콩 협의체의 정상급 격상을 지속 요청
    - ※ 2019년 11월 25~27일간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 전통적 우방 중국과 실질 협력 강화 및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인접 국가와 국경문제 해결 통해 지역 안정 달성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원조공여국(한국·미국·일본·유럽·호주 등)과의 관계도 강화
  - 베트남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1985) 및 부속조약' 체결 문제를 마무리(2005.12. 비준서 교환), 베트남과의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경문제 해결의 진전(일부 국경은 아직 미해결)
  - 태국과는 프레아 비헤아 사원 인접 지역 국경 문제를 둘러싼 이견 지속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사원의 주변지역이란 사원의 돌출 지역을 의미하며, 태국은 이 지역에서 군병력 등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
  -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분쟁의 핵심인 4.6km<sup>2</sup>에 대한 판단을 유보 하여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여지 존재

## 2. 주요 외교 사안별 입장

### 가. 한반도 문제

- 캄보디아는 한반도 문제 관련,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지지해 왔으며,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지지
- 남북 문제에서 대체로 아세안 등 지역무대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하면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북한 문제 관련 독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세한 태도 변화
  -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 훈센 총리의 친서로 무력행위 규탄
  - 2016년 4·5차 북핵실험 및 2017년 6차 핵실험 후 독자 규탄성명 발표
  - 북한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환영 입장 표명

### 나. 동남아 지역 이슈

- 동티모르의 2011년 아세안 가입 신청 관련 지지
- 남중국해 문제 관련, 2002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 채택을 주도하는 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중국과 경제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문제 관련 중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12년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당시, 남중국해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관련 국가 간 합의 도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아세안 설립 후 최초로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발표에 실패
  - 2016년 중국-필리핀 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 결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성명 발표에 적극 반대

## 다. 중동 분쟁

- 독립주권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신성한 권리를 지지하며, 관련국들이 증오와 역사적 적대감을 버리고 항구적으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
  - 1967년 국경선을 토대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 지지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재개 촉구(2011년 외교장관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시 언급)

## 라. 대만 문제

- 대만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전체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
-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로서 ‘진정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중국의 ‘1국가 2체제’ 방식의 통일정책을 지지하여,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등 중국 본토로부터의 모든 분리 독립 시도에 반대

## 마. 유엔 개혁

- 오늘날 변화된 국제 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의 확대 개편 지지
- 일본·독일·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지하며, 아시아·아프리카·중동·남미를 대변하는 비상임이사국도 늘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15~25개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 3. 지역 협력

#### 가. 개요

- 1999년 4월 열 번째로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 2002년에 의장국을 수임하고 2002년 11월 GMS 및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 ACD(Asia Cooperation Dialogue) 참여, ASEM 가입(2004.10.), 2012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2020년 제13차 ASEM 정상회의 개최(2018.10. 확정) 등을 통해 지역 협력 무대에서 캄보디아의 위상 강화 노력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5개국 경제협력전략 ACMECS, CLV 정상회의, CLMV 정상회의에 따라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개발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
  - 2003년 11월 제1차 ACMECS(Ayeyawady- 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정상회의 개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2004.5. 가입))
  -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1차 CLMV 정상회의
-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베트남·라오스와의 실질 협력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발삼각지대’ 구상 실현을 통한 공동번영 추구

#### 나. 아세안(ASEAN) 가입

- 1994년 아세안 옵서버 지위 획득
- 1995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및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 1996년 4월 아세안 회원국 가입 신청서 제출

- 1996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라오스·미얀마와 동시가입 원칙 결정
- 1997년 7월 23일로 예정되었던 아세안 가입이 1997년 무력충돌 사태 등으로 무산되면서 라오스·미얀마만 가입
- 1999년 4월 30일 아세안의 열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다. ASEM 가입

- 제5차 ASEM 정상회의에서 ASEM 미가입 3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동시가입 지지를 표명했으나, EU 측이 미얀마에 민주화 및 인권개선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얀마의 ASEM 가입 수용 불가 입장 표명
- 2004년 7월 훈센 총리는 미얀마가 ASEM에 가입하지 못하면 캄보디아도 ASEM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
- 제5차 ASEM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SOM(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급 회의)에서 13개 신규 회원국 가입 문제 타결
- 2004년 10월 제5차 ASEM 정상회의에서 EU 10개국 및 아세안 3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ASEM 동시가입

## 4. 다른 나라와의 관계

### 가. 인근 국가

#### (1) 태국

-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 체결과 최고국가평의회(SNC)의 본격 활동에 따라 같은 해 11월 대사를 파견, 훈센 정부와 적극적 교류 추진
- 그러나 2003년 1월 프놈펜에서 반태국 시위가 발생하여 주캄보디아 태국 대사관과 태국인 소유 사업체 다수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외교 관계가 공사급으로 격하
- 이후 캄보디아가 외교장관 파견을 통한 공식사과와 피해보상(2,100만 달러) 등 관계개선 조치로 양국 관계 정상화
- 2009년 12월 캄보디아가 탁신(Thaksin) 前 태국 총리를 경제특별고문에 임명한 것으로 양국 대사 소환 등 관계 악화  
※ 당시 탁신은 태국에서 국가반부패법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해외 도피 중
- 2008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가 프레아 비헤아 사원을 캄보디아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반발하여 사원에 진입한 태국 시위대 3인을 캄보디아 군대가 억류하자, 태국도 군대를 파견하여 양측 군대 대치
- 2000년 양국은 국경문제 해결 위해 공동국경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년까지 위원회 6~7차례 개최
- 현재 태국 의회는 공동국경위원회에서 채택한 3개 합의의사록(내용 비공개)에 대해 미동의

- 2010년 8월 탁신 전 태국 총리가 경제고문직을 사임한 후, 2010년 9월 미국·아세안 정상회담, 2010년 10월 ASEM 정상회담 및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계개선 및 국경선 획정 문제 협의
- 2010년 12월 프레아 비헤아 사원 부근 캄보디아 영토 표식 설치 및 캄보디아 국경 침범 태국 의원 등의 체포. 이로써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11년 2월 프레아비헤어 사원 부근에서 무력충돌 발생. 이에 안보리 긴급회의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소집.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옴서버 파견 등 아세안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 등 추진
  - 2011년 4월 캄보디아는 1962년 판결 해석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 2012년 4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리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의 주변지역이란 사원의 돌출 지역을 의미하며, 태국은 동 지역에서 군 병력 등을 퇴거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
  -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대상 지역이 제한적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양국 간 국경 분쟁은 지속
- 2014년 태국의 빠라웃 총리 집권 이후, 훈센 정부는 과거 탁신 및 잉락 총리 일가와 밀월 관계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 중이나, 태국 체류 불법 노동자 문제, 국경 문제 등으로 관계 발전은 불투명

## 캄보디아의 대 태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4	563	4,925	-4,389
2015	580	5,371	-4,791
2016	419	1,910	-1,491
2017	401	2,042	-1,641
2018	365	2,666	-2,301

출처 : IMF

### (2) 베트남

- 캄보디아는 1930년대 이후 베트남과 항불 독립투쟁에서 서로 협력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
  - 1975년 초 구 월남과 캄보디아(당시 크메르공화국)가 패망할 당시에는 월맹과 크메르루즈 공산세력이 공동보조 아래 군사 공세 감행
- 이후 캄보디아(크메르루즈)가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주도권 장악 시도에 대해 독자적 공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경 충돌 등 양국 관계 악화
  - 1978년 12월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
- 베트남은 강력한 인도차이나 연방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 아래 친중국계 폴포트 정권 축출 및 행삼린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15만~16만 명의 군대 주둔
  - ※ 1979년 2월 캄보디아-베트남 우호협력조약 체결
- 베트남은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해 1982년 7월 부터 단계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철군(1989년 1월 철군 완료)

- 1990년대 이후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3개국 협력 체제의 기본 틀 속에서 특히 베트남과 정상을 포함한 각급 인사 교류 및 경제협력 등 양자 차원 우호협력 관계 강화
- 매년 CLV 3개국은 경제·과학·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하여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무상원조와 기술협력 확대
- 2005년 12월 양국 관계 증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국경 문제와 관련,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1985) 및 부속조약을 체결 (2005.12.6 비준서 교환)하고, 국가경계획정 공동위원회가 조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 야당 측은 1985년은 캄보디아 정부가 베트남의 영향력 하에 있던 시기로, 이 시기에 체결한 조약과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 체결한 조약은 베트남에 유리한 조약이라면서 정부·여당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훈센 총리, 행삼린 국회의장 등 정부·여당의 핵심 지도자들이 과거 베트남의 지원 하에 폴포트 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수립하였던 경력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국민은 뿌리 깊은 반베트남 정서 보유
  - 야당은 이러한 반베트남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 중

## 캄보디아의 대 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4	568	2,933	-2,365
2015	595	3,069	-2,474
2016	229	1,416	-1,187
2017	204	1,546	-1,342
2018	166	1,361	-1,195

출처 : IMF

### 나. 주요 국가

#### (1) 중국

- 캄보디아는 오랜 역사 속에서 중국과 교류를 이어왔고 독립 이후에는 원조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오늘날에도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 1958년 양국 간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친미·친서방 우익 노선의 론놀 정권(1970~1975) 기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우호협력 관계 유지  
- 양국 상주 대사관은 폐쇄되었다가 1993년 재개
- 2001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2002년 리펑 총리, 2009년 시진핑 부주석,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 등으로 양국 우호협력 관계 증진의 기반 강화
- 중국은 캄보디아에 2003년까지 연평균 500만~600만 달러의 소규모 무상원조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04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유·무상 원조 제공, 부채 탕감, 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실질 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

- 2010년 12월 훈센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 시 양국 관계를 선린우호 파트너 관계에서 포괄적·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격상
  - 중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특히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 중국 남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중점적 경제 지원
- 중국은 매년 수억 달러의 원조를 캄보디아에 제공해 왔으며, 건설·인프라·농업 등의 분야에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국가순위 1위) 진행
  - 2019년 1월 훈센 총리의 중국 공식방문 시 ▲향후 3년간 5.88억 달러 규모의 대 캄보디아 개발원조 제공 ▲2023년까지 교역 규모 100억 달러 달성 목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캄보디아 국가발전정책인 사각전략의 연계 발전 추구 등 합의
- 경제·개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등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은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캄보디아의 대 중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4	438	3,604	-3,166
2015	606	4,147	-3,541
2016	609	4,551	-3,942
2017	743	5,495	-4,752
2018	974	6,627	-5,653

출처 : IMF

※ 홍콩·마카오는 제외

## (2) 일본

- 2차 세계대전 중반 이후 일본군이 프랑스 지배 아래 있던 캄보디아에 진주,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했으나 1945년 패전과 동시에 프랑스에 캄보디아 통치권 이양. 1953년 시하누크 국왕의 일본 방문 후 11월, 캄보디아의 독립과 거의 동시에 외교 관계 수립
  - 1975년 민주캄푸치아공화국 수립(크메르루즈 정권) 이후 대사관이 폐쇄되었다가 1992년 3월, 17년 만에 다시 개설
- 일본은 1991년 캄보디아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이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개발원조(무상원조 67.5%, 기술협력 23.9%, 차관 8.6%) 제공
- 일본은 1991년 평화협정 체결 이래 캄보디아 재건 및 국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의 민간투자는 아직 적은 편이나 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인도를 잇는 동남아 지역 수평축의 경제권 개발에 관심
  - 일본은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 예산의 약 50% 기여
  - 캄보디아 정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개 지지
- 일본의 아세안 중시 정책에 따라 캄보디아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 내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일본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 규모 증가 추세
  - 2013년 아베 총리 캄보디아 방문, 2014년 기시다 외상 캄보디아 방문, 2018년 고노 외상 캄보디아 방문, 2013년, 2015년, 2018년 훈센 총리 일본 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도 지속

## 캄보디아의 대 일본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4	701	279	422
2015	880	332	548
2016	827	528	299
2017	821	584	237
2018	1,053	624	429

출처 : IMF

### (3) 미국

- 캄보디아는 미국과 1953년부터 10년간 약 4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8,300만 달러의 군사지원을 받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초반 관계가 악화되어 1965년 외교 관계 단절
- 1969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나, 1975년 크메르루즈 정권 수립과 함께 재단절
-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 체결로 같은 해 프놈펜에 미국 대표부 사무소가 개설되고 1992년 미국은 그간 실시해 온 캄보디아 금수 조치 해제
  - 1993년 캄보디아 왕국이 수립됨에 따라 1994년 5월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 1997년 훈센 당시 제2총리가 라나리드 제1총리를 축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 의회는 대 캄보디아 정부 원조를 금지시키는 등 양국 관계 경색

- 2003년 무렵부터 양국 관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2008년 8월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훈센 총리 및 호남흥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지원과 대 캄보디아 경제 지원 약속
- 캄보디아 정세가 안정되면서 9·11 사태 이후 캄보디아의 대테러 관련 협조 등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 캄보디아는 대테러, PKO 및 지뢰 제거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협력에 참여
- 2010년 10월 클린턴 국무장관 공식 방문, 2011년 1월 제1차 미국·캄보디아 국방대화 개최, 2011년 3월 미국-메콩하류지역 협력 이니셔티브(LMI) 실무회의의 프놈펜 개최 등 양국 관계 점진적 발전
- 론놀 정권 당시 약 5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대 미국 부채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계류 중이며, 현재 양측 협의 진행 중
- 미국은 캄보디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류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국은 우호 관계 유지. 다만 미국은 캄보디아 내 인권, 민주주의 상황 개선에 관심이 있어 2017년 야당 해산 및 2018년 제6대 총선을 전후로 양국 관계가 다소 경색되었으며, 특히 최근 캄보디아와 중국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캄보디아와 미국 관계는 이전에 비해 소원해지는 경향
  - 2012년 아세안 회의 계기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 캄보디아 방문, 2016년 케리 국무장관 캄보디아 방문, 2016년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훈센 총리 미국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캄보디아의 대 미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4	2,588	361	2,227
2015	2,749	432	2,317
2016	2,147	174	1,973
2017	2,307	192	2,115
2018	2,811	6,627	2,601

출처 : IMF

### (4) 러시아

- 러시아는 1950년대에 캄보디아와 수교했으나 크메르루즈 집권기에 대사관을 철수. 1979년 친소련 세력이 베트남을 앞세워 친중국 세력인 크메르루즈를 축출한 이후, 1980~1990년대 초반까지 각종 물자와 기자재 제공, 엔지니어 파견, 수천 명의 유학생 초청사업 등과 함께 총 15억 달러 규모(유상원조)의 차관 지원

- 차관 상환 문제는 오랫동안 양국 간 현안이었으나, 2018년 10월 제12차 ASEM 정상회의(브뤼셀) 계기 훈센 총리와 메드바데프 총리 면담 시, 러시아가 15억 달러를 부채가 아닌 투자로 인정하는 데 동의
- 현재는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나, 2016년 러시아-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러시아 공식 방문 시 훈센 총리는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 총리와 농산물 수출 확대, 기존 무역협정 개정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협력 확대 위해 노력 중

##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 가. UN

- 1955년 캄보디아, 유엔 가입
- 1997년 7월 무력충돌 사태 이후, 주유엔 캄보디아 대표부에서 훈신펙당의 시소왓(Sisowath) 대사와 국민당의 옥 보리스(Ouch Borith) 차석대사 간에 대표권을 둘러싼 분쟁 발생
- 라나리드 왕자가 1997년 9월 개최된 제52차 유엔 총회에 참가 연설을 하겠다고 신청, 법적으로 누가 캄보디아를 대표하는지를 두고 혼선 초래
  - 무력충돌 사태 이후 라나리드 왕자 대신, 당시 외무장관이던 응훗이 제1총리로 임명된 상태
- 1997년 9월 2일 시하누크 국왕이 응훗 제1총리 및 훈센 제2총리를 유엔총회 수석대표로 임명하여 캄보디아의 유엔총회 대표권 문제는 일단락
  - 유엔 신임장위원회 심의 결과, 캄보디아 의석은 결석인 것으로 확인
- 1998년 12월 4일 유엔 신임장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제출한 옥 보리스 대사의 신임장 심사 후 만장일치로 승인
- 1998년 12월 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위 신임장이 승인된 직후 캄보디아의 유엔 대표권 회복
  - 호남흥 외교장관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캄보디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유엔과 관심 국가들의 역할에 사의를 표명하고, 유엔인권센터의 캄보디아 내 임무 연장 등 유엔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요지로 연설

- 캄보디아군은 유엔 평화유지(PKO) 활동에 적극 참여
  - 2006년부터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여 누적 5천 명 이상 파견
  - 2018년 12월 기준 중앙아프리카공화국(228명), 말리(311명), 다르푸르(3명), 레바논(184명), 남수단(88명)에 811명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유지

## 나. WTO 가입

- 1994년 12월 캄보디아 WTO 가입 신청 및 WTO 캄보디아 가입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 1999년 6월 캄보디아 정부,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각서 제출
- 2001년 5월 이후 여러 차례 WTO와 W/G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일본·EU·호주 등과의 양자 협상도 개최
- 2001년 12월 캄보디아 정부, 상품 및 서비스 최초 양허안 제출
- 2003년 9월 WTO 각료회의에서 캄보디아의 WTO 가입 확정
- 2004년 9월 캄보디아 국회에서 WTO 가입안 비준하여 10월 가입
- 2017년 캄보디아는 WTO 내 최빈개도국(LDC) 그룹 의장직 수임

## 6.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아동권리협약 : 1992년 9월 22일 서명, 1992년 10월 15일 비준
- 무력분쟁 하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 : 2000년 6월 27일 서명, 2002년 5월 30일 비준
-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 2000년 6월 27일 서명, 2002년 5월 30일 비준
- 여성차별철폐협약 : 1992년 9월 22일 서명, 1992년 10월 15일 비준
-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 2001년 11월 11일 서명, 2005년 8월 31일 비준
- 인간 밀매에 관한 의정서 : 2001년 11월 11일 서명, 2005년 11월 25일 비준
- 지뢰금지협약 : 1997년 12월 3일 서명, 1999년 7월 28일 비준



## 7. 수교 및 공관 설치 현황

### 가. 수교국

- 우리나라를 포함, 총 137개국과 외교 관계 수립

### 나. 캄보디아 재외공관

- 대사관(24)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태국, 독일, 호주, 쿠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프랑스, 북한,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벨기에, 스위스(제네바 대표부 겸임, 제네바 소재), 쿠웨이트
- 대표부(2) : 유엔 대표부, 유네스코 대표부
- 총영사관(8) : 홍콩, 상하이, 광저우, 충칭, 쿤밍, 난닝(이상 중국), 호치민(베트남), 사키우(태국)
- 명예영사관(6) :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이상 일본), 워싱턴, 펜실베이니아, 로웰(이상 미국), 터키

### 다. 주캄보디아 외국공관

- 상주대사관(29) : 한국, 베트남,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러시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일본, 미국, 북한,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루나이, 미얀마, 불가리아, 파키스탄, 스웨덴, 쿠웨이트, 터키, 캐나다, 체코, 동티모르

- 대표부(1) : EU 유럽위원회
- 영사관(4) : 한국, 중국, 일본(시엠립), 베트남(시하누크빌, 바탐방)
- 국제기구 상주사무소 : UNDP, UNFPA, UNICEF, UNESCO, UNHCR, UNOHCHR, UNAIDS, FAO, WHO, WFP, ILO, IFRC, ICRC, IOM, IMF, 세계은행 등

# IV

---

## 경 제

---

1. 개 관
2. 경제발전 전략
3. 경제 현황
4. 무역 동향
5. 투자 환경

## 1. 개 관

- 캄보디아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7%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2018년에도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 예상
  - 2018년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7.25%를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2012~2018) 캄보디아는 7% 내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ADB·IMF·WB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캄보디아가 향후 몇 년간 현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위한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
- 2018년 1인당 GDP는 1,509달러(IMF)로, 저소득국을 벗어나 2015년부터 중저소득국 지위 획득
  - ※ 세계은행 중저소득국 기준 : 1,046~4,125달러
- 캄보디아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정부의 목표치인 GDP의 6%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
  -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수입은 동남아 국가의 평균 수준(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존에는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점차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력
  - 외국인투자 장려와 투자 안전보장 위해 뉴욕 협약(1958)을 비준하고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 채택
  -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시행 및 투자개발위원회(CDC)를 통한 투자절차 간소화, 2003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 여건 점차 개선

- 상기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이후에도 꾸준히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에는 52.2억 달러 규모 FDI 투자 유치 성과

### 연도별 캄보디아 투자 신고액

(단위: 천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4,495,656	1,604,426	3,920,030	3,244,207	5,216,900

※ CDC 신고 집계된 캄보디아 투자 통계로 실투자 금액이 아닌 신고 금액으로 매년마다 변동이 큼.

※ 단,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가 집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통계보다 훨씬 높는데, 그 이유는 CDC가 투자 프로젝트 계획상의 총 고정자본 투자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

-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체 투자액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은 50% 상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캄보디아 주요 산업인 봉제·건설·관광·농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활발하며, 2017년도 FDI는 GDP의 10.8% 차지
- 이처럼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공식·비공식적 규제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 인프라 면에서의 기본적 한계 등은 외국 자본 유치를 여전히 제약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이슈로 인하여 투자 하방 요인도 잠재
- 캄보디아의 FDI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자본 형성을 위한 국민 총저축(국민총생산-국민총지출) 규모가 작은 데 주로 기인

## 2. 경제발전 전략

- 캄보디아 정부는 2004년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을 수립 이래 매 5년 주기로 ‘사각전략(RS : Rectangular Strategy)’ 발표
- 캄보디아 정부는 2019~2023년 제4기 사각전략을 발표한바, 제3기 사각전략과 비교시 기존 4개 기본 원칙 및 목표를 유지하면서 4대 전략 주요 내용은 다소 변화

### 가. 사각전략의 기본 원칙 및 목표

- 성장 : 기간 내 7% 경제성장 목표
  - 경쟁력 있고 다변화된 산업구조 조성, 안정된 성장, 물가 안정, 환율 안정, 외환보유고 안정적 확보, 안정적 부채 관리
- 고용 : 청년층의 질적·양적 고용 확보 목표
  - 젊은층에게 기술교육, 취업 정보 제공, 노동환경의 개선, 기업 창업 및 민간투자 기술 교육
- 형평성 : 빈곤인구 비율 10% 이하로 감축 및 빈곤층으로의 회귀 방지
  - 시장 메커니즘 참여 유도, 사회보호정책의 실행, 서민 생활비 절감,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불공정 감축
- 효율성 : 국가 및 지방 정부, 공공기관의 제도적 능력 및 거버넌스 강화
  - 국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체계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

## 나. 사각전략 4대 전략 내용 변화

전략	3기 사각전략	4기 사각전략
1	농업(Enhancing Agriculture Sector)	인적자원개발 (HRD)
2	인프라(Development of physical infrastructure)	경제 다변화 (Economic Diversification)
3	민간 및 고용(Development of private sector and employment)	민간 및 고용(Enhancing Private Sector and Employment)
4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개발(Capacity Building and HRD)	지속적 포용적 발전(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

## 다. 각 전략별 세부 주요 과제

- 인적자원 개발
  - 교육의 질 확보 및 과학기술(STEM) 교육 강화
  - 기술 및 직업교육
  - 공공보건 및 영양
  - 양성평등 및 사회 보장제도
- 경제 다변화
  - 물류 개선 및 교통-에너지-디지털의 연결
  - 신 경제성장 동력 개발
  - 디지털경제 및 4차 산업혁명 준비
  - 금융 및 은행 시스템의 발전
- 민간 및 고용
  - 노동시장 발전
  - 중소기업 및 창업 발전
  - 민관협력(PPP)의 준비 및 실행
  - 경쟁력 강화

- 지속적·포용적 발전
  - 농업 및 농촌발전
  - 천연자원 및 문화 지속성 강화
  - 도시 관리
  - 지속가능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 3. 경제 현황

#### 가. 주요 부문별 현황

##### (1) 국내총생산(GDP)

- 캄보디아의 GDP는 봉제업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부터 약 7%의 성장률 유지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억 달러	167	181	200	222	245
1인당 GDP	달러	1,094	1,165	1,271	1,386	1,509
GDP 성장률	%	7.1	7.0	6.9	7.0	7.3

출처 : IMF

## (2)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과 함께 2008년 25%까지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은 이후 안정세를 찾아 최근에는 약 3%대를 유지하여, 경제성장률 대비 안정적인 상승률 보임
  -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식료품 가격 인상, 내수 증가로 인한 외식 및 의류 부문 지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물가상승률	%	3.9	1.2	3.0	2.9	2.4

출처 : IMF

## (3) 재정

- 캄보디아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정부 목표치 GDP의 6%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
  - 캄보디아 정부 재정수입은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점차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4) 환율

- 리엘 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2000년대 후반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현재는 1달러당 4,000리엘 선에서 안정화
  - 2018년 달러당 평균 4,051리엘 기록(세계은행)

## 나. 산업별 현황

### (1) 캄보디아 산업구조

- 캄보디아 기업의 45%는 식품제조업, 35%가 의류·신발 등 단순 봉제업
  - 전체 7만 7천 개의 기업 중 영세기업이 97.3%, 중소 중견기업이 2.2%, 대기업이 0.6% 차지
  - 대기업이 인력의 63.3%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 63%가 외국계

### (2) 1차 산업(농림수산업)

- 캄보디아 1차 산업의 생산 총액은 GDP의 약 25%이며, 캄보디아 인구의 45% 이상이 농업에 종사
- 농업의 경우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미비, 생산성 향상 기술 미흡, 농자재 생산 및 수급 미흡, 유통구조 및 농업연구 R/D 투자가 미흡한 상태.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전체 작물 생산성이 낮음
  -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인접국보다 낮으며, 생산성이 높은 건기에는 관개시설이 미흡하여 우기 재배 면적의 19.7%만 재배
- 이에 관개시설 정비 등을 통한 쌀 증산 및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 중
  - 2017년 잉여 벼 5.56만 톤 생산

### (3) 2차 산업

-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은 섬유(봉제·신발·가방)·관광·농업·건설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투자도 이들 산업 중심
- 제조업 분야에서 봉제업이 수출·고용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봉제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거의 유일한 2차 산업으로, 봉제 관련 제품 수출은 캄보디아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국은 미국(24%), 유럽(46%) 및 일본(19%) 등 주로 선진국

- ※ 한국 기업은 캄보디아 봉제 산업의 15%(중국에 이어 2~3위) 정도를 차지(60여개 업체, 10만여 명 고용)
- 2017년 봉제 산업 고용 인원은 약 74.3만 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
- 캄보디아에는 원자재 생산업체가 없어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봉제업체들이 단순 가공 공정하여 재수출
- 캄보디아의 수도와 유훈비는 경쟁국과 비슷하나, 전기요금과 물류비가 높고 노동생산성이 낮음. 따라서 저임금 요인을 제외하면 캄보디아 봉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
- ※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현황 : 100달러(2014), 128달러(2015), 140달러(2016), 153달러(2017), 170달러(2018)
- ※ 1인당 노동생산성(달러) 현황 : 싱가포르(145,864), 일본(80,571), 한국(76,850), 말레이시아(68,321), 태국(33,839), 중국(27,667), 필리핀(21,300), 파키스탄(18,679), 베트남(12,235), 방글라데시(10,874), 미얀마(10,624), 캄보디아(6,964)  
(출처 : The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 2018)
- 건설업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성장 중인바, 총액이 2015년 3.3억 달러에서 2017년 6.4억 달러로 증가
- 최근 높은 대외개방성, 정치적 안정, 낮은 세금 등에 힘입어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건설 부문 비중 급증 추세

#### (4) 3차 산업(서비스업)

-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상회
- 관광산업은 비약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620만 명을 기록
-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700만 명, 관광 수입 50억 달러 예상
-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 개발 정책에 따라 호텔·리조트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 증가 추세

- 최근 캄보디아 정부의 관광 개발 전략에 따라 중국 관광객 집중 유치 중 (2018년 중국인 관광객은 202만 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

### 캄보디아의 관광객 현황

연도	한국	베트남	중국	라오스	일본	미국	전체
2012	411,491	763,136	333,894	254,022	179,327	173,076	3,584,307
2013	435,009	854,104	463,123	414,531	184,964	184,964	4,210,165
2014	424,424	905,801	560,335	460,191	215,788	191,366	4,502,775
2015	395,259	987,792	694,712	405,359	193,330	217,510	4,775,231
2016	357,194	959,663	830,003	369,335	191,577	238,658	5,011,712
2017	345,081	835,355	1,210,782	502,219	203,373	256,544	5,602,157
2018	301,770	880,128	2,024,443	426,180	210,471	250,813	6,201,077

출처 : 캄보디아 관광부

- IT 분야의 경우, 유선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이동전화는 빠르게 성장 중
  - 휴대전화는 2016년을 기준으로 캄보디아 전 인구 대상 약 9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13%는 두 대 이상의 휴대전화 보유
  -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유선전화는 2015년 약 2천만대에서 2018년 약 1.8천만 대로 감소세

### 다. 시장 특성

- 봉제업을 제외한 여타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여 기본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시장

- 베트남·태국·라오스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인도차이나 지역의 밀무역 중개시장 역할
- 최근 세계 최빈국을 벗어나 중저소득국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생활용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구매력이 약하여 중고 제품 위주의 시장 형성
- 계층 간·도농 간 소득 불균형 심화로 전체 소득이 소수 계층에 집중
- 전 인구의 약 14%가 거주하고 있는 프놈펜에 소비 시장이 집중되어 있고 운송 수단이 열악하여, 유통 구조가 취약하며 상권 확장에 한계
- 장기간 내전이 종식되고 ADB·세계은행·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한·중·일 등의 지원으로 사회간접자본 재건 및 복구 사업 진행 중
- 민간 저축률이 매우 낮아 자체 자원 조달이 불가능하여 외국 자본 및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체제
- 내전으로 캄보디아 화폐 가치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달러화가 자유로이 통용되는 달러 경제권 형성

## 4. 무역 동향

### 가. 개요

-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기본 소비재와 유류를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 시장의 특성상 무역수지 만성 적자 상태  
- 2017년 53억 달러, 2018년 72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는 투자 및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흑자로 대체
- 주요 수출 품목은 외국인 진출 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고무, 농산물,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직물, 원유 및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기타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
-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2010년 교역액이 대폭 감소했으나 2011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8년에는 수출 124억 달러, 수입 196억 달러 기록

### 캄보디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10,797	11,954	10,124	10,787	12,368
수입	17,526	18,717	12,900	16,070	19,560
총 교역량	28,323	30,671	23,024	26,857	31,928
무역수지	-6,729	-6,763	-2,776	-5,283	-7,192

출처 : IMF

## 나. 수출 동향

- 최근 캄보디아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봉제의류가 총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외에는 고무·목재 등 1차 생산품 위주로 구성
  - EU의 균수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무관세, 일반 특혜관세(GSP) 등이 적용되면서 봉제 관련 품목은 대부분 미국과 EU 등으로 수출
- 2018년을 기준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순이며, 한국은 14위

## 다. 수입 동향

- 최근 캄보디아 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재 수요 급증, 봉제용 직물 및 원·부자재 수입의 증가, 건설 경기 호조로 인한 건축자재 수입 증가가 주요인
- 캄보디아 전체 수입 중 약 30%를 제3국 재수출용 수입 품목이 차지
  - 직물 등 원자재를 캄보디아로 무관세 수입·가공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물량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
- 2018년을 기준으로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순이며, 한국은 8위

## 라. 수출입 관리제도

### (1) 수입 부과금

- 캄보디아 수입관세는 기본적으로 5단계 세율로 구분
  - 농업 소도구, 비료, 스포츠 용품, 의료 및 교육 원자재 : 0%
  - 필수소비재와 기초 원재료 : 7%

- 중간재, 기계 및 시설 : 15%
- 기타 소비재 및 건축자재 : 20%
- 사치소비재·담배·주류·승용차 : 35%

- 일부 수입품에는 수입관세 외에 특별세 부과

- 5% : 원유(Topped Crudes)
- 10% : 윤활유(기타),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비디오 및 카메라 장비, 기타 과일 음료
- 15% : 자동차용 디젤 연료, 등유
- 20% : 필터담배
- 25% : 윤활유(차량용), 시가
- 30% : 맥주, 승용차(1,000cc 이하)
- 35% : 포도주
- 40% : 상용차(트럭 및 여객 차량 전체)
- 60% : 승용차(1,000cc 초과~3,000cc 이하)
- 65% : 승용차(3,000cc 초과)

## (2) 수출입 제도

- 수입 승인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보건부 등의 수입 승인 필요
- 목재·제재목·보석류·골동품 수출에는 정부의 수출 사전승인 필요
- 모든 수출입 품목 통관 시에는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Invoice)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메콩강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승인서(Transit License) 필요
- 라벨링 부착 의무는 없으며 마약류·폭발물·독성화학물질 등은 수입 금지
- 상무부 산하기관 CAMCONTROL이 표준규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 시 구체적인 규격 준수 여부 등 지침이 아직 미정비

## 5. 투자 환경

### 가. 개요

-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력
- 외국인 투자 장려와 투자 안전보장을 위해 뉴욕 협약(1958)을 비준하고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을 채택
-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시행 및 투자개발 위원회(CDC)를 통한 투자 절차 간소화, 2003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 여건 점차 개선
-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100% 외국인 투자 지분을 인정
  - 투자 금지 분야는 2005년 9월 27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 제도로 운영
-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
- 캄보디아 정부는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만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가 받은 대로 투자를 이행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령으로 규정

## 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1) 기능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1994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 투자 서비스 기관(One-Stop Service)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투자 인센티브 승인 여부 업무 총괄
-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이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의 현지 기업 활동 관리·지원
- 또한 캄보디아의 복구·개발 및 투자 활동에 관해 평가하고 승인하며, 투자신청서 접수 후 28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 일정 규모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Q2P(적격투자프로젝트) 인정을 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진행

### (2) 조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 훈센 총리
  - 제1부위원장 : 선임장관
  - 제2부위원장 : 총리 직속 장관
- 조직 구조 :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특별경제구역(SEZ)을 관할하는 3개 부서로 구성
  -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위원회 : 공공부문 투자 및 개발협력 담당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 민간부문 투자 담당
  -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청 : 특별경제구역투자 담당

## 다. 투자유치 관련 법규

- 1989년 7월 최초의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으며 이 법은 총 44개의 개략적 조항만을 포함
- 1994년 8월 국회에서 새로이 채택한 외국인투자법은 ① 투자 승인 기업체 법인세 면제 기간 부여, ② 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입관세 면제, ③ 이윤 송금 자유화 등 대폭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간주
- 2003년 4월 캄보디아 국회는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① 법인세 감면율의 단일화 등 인센티브 제도 정비, ② 투자제한 부문의 완화, ③ 투자보장 강화, ④ 외국인 고용 허가, ⑤ 투자 인센티브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도모
-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행정처리 과정상 투명성 부족, 업무처리 지연, 부패 등의 문제 상존
- 2008년 9월 제4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가 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입법·사법·행정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투명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특히 외국인 투자 관련 모든 사항을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에 위임, 각종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승인 과정 단축, 등록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 중

## 라. 투자우대제도

- 금융상 특별우대는 없으나 세제 면에서 집중 우대하고 있으며 외환 송금에 전혀 제약이 없는 특혜 부여

-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투자 분야로 명시된 이외의 프로젝트는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따라 최장 9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다음 용도에 쓰이는 공장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은 수입관세 100% 면제
  - 승인 프로젝트 : 공장 건설 자재, 생산수단 및 장비
  - 수출 프로젝트 : 수출용 원부자재 및 부품
- 또한 외국인 경영진 및 그 가족의 체재 허가,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시 체재 허가 등의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제도 시행

### 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천 달러, 승인 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4,495,656	1,604,426	3,920,030	3,244,207	5,216,900

출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 주요 국가별 캄보디아 투자 신고액

구분	2015		2016		2017	
	국가	신고액	국가	신고액	국가	신고액
1	중국	240,573	일본	773,748	중국	1,437,223
2	영국	115,056	중국	731,373	싱가포르	252,090
3	홍콩	109,119	홍콩	319,955	한국	149,502
4	베트남	89,335	태국	130,827	홍콩	85,421
5	말레이시아	62,925	싱가포르	103,768	베트남	51,609

출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 봉제 분야가 저임금을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지역으로부터 이전이 늘어나면서 꾸준한 투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규모 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 건축 등 건설·부동산 분야, 대형 리조트 개발 등 관광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마. 외국인 투자 제한

- 캄보디아 투자법 시행령에는 아래 5개 분야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내국인 투자도 금지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목재 벌목
  -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 제조 및 가공
  - 수입한 폐기물에 의한 발전 및 가공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투자
- 법인세와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투자 분야
  - 무역업, 운송서비스업, 면세점, 음식점, 상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클럽, 마스크 관련 산업, 도·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등 46개 분야
- 수입관세는 면제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 면제가 불가능한 분야
  - 통신 기본 서비스, 천연가스 및 유전 개발, 광물자원 개발 및 유전 개발 활동에 대한 공급 등 2개 분야
-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지만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양도하거나 인수·합병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양도·인수 및 합병 시에는 사전에 CDC에 서면 신청하여 승인 필요
-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 했다는 사실을 경제재정부에 증명 필요

- 투자자가 기업 해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장비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 대한 매각 불가
  - 사용 연도가 5년 미만의 면세 수입된 기계·기기는 해당 수입관세를 납부한 후에 처분 가능

# V

## 사회·문화

1. 사회 일반
2. 교육
3. 치안
4. 교통 및 통신
5. 언론
6. 보건

## 1. 사회 일반

- 총 인구는 1,625만 명(2018, IMF)이며 인구밀도는 92.0명/km<sup>2</sup>
- 전체의 약 97%가 크메르족이고, 그 밖에 베트남계, 중국계, 참족, 고산족 등 소수민족
  - 크메르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중국계는 상업에, 참족 및 베트남계는 어업에 주로 종사
  - 고산족으로는 시엠립 주 동북부와 캄퐁툼 주에 걸쳐 거주하는 쿠이(Kuy)족(약 14,000명), 라타나끼리 주에 거주하는 탐푼(Tampuan)족(약 15,000명), 몬돌끼리 주에 거주하는 스티엥(Stieng)족(약 3,200명) 등이 존재
- 헌법에서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남방불교) 신자이지만,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
  -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신앙은 물론 교육 및 사회 활동의 장소 역할도 수행
  - 참족을 포함한 3%가량이 이슬람교도이며, 기독교도는 약 2%
- 캄보디아인은 앙코르 제국의 후예라는 강한 자부심 보유
-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친절한 편이지만 자존심이 강하며 체면을 중시
  -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친근하게 대화하며 외국인들에게도 친절한 편
  - ‘압뭉’이라는 급변하는 성미가 있어 현지인을 비하하거나 구박하는 행동을 하면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전통 의상으로 여성은 ‘사롱’이라는 큰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끄로마’라는 천을 두르며, 남성은 ‘사롱숏’이라는 의복 착용

- 결혼식은 주로 건기인 12~5월 사이에 집 앞의 도로 또는 공터에 천막을 치고 이틀 정도 진행하는데, 아침에는 전통 혼례식을 치르고 저녁부터는 피로연 형식으로 진행

## 2. 교육

- 교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1979년 크메르루즈 붕괴 이후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
  - 전반적으로 교육시설·교사·교육 매체가 모두 부족한 상태
  - 프놈펜의 경우 그나마 많이 복구되었지만 지방은 아직도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
  - 2009~2013년에 중·고등교육 향상을 위한 정책이 실행되면서 중·고등학교 수 증가 및 취학률 향상
  - 최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사 신규 채용 확대, 임금 인상 등 진행 중
- 교육제도는 1996년부터 우리와 같은 6-3-3제 유지
- 공립학교는 고등학교(12학년)까지 무상교육이나 교육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최근 사립학교 증가 추세

## 캄보디아 교육기관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개)	4,176	7,189	1,716	511
학생 수(명)	205,492	2,028,694	605,173	303,893
교사 수(명)	5,164	46,157	28,291	13,223
수료율(%)	-	79.06	44.53	22.10

※ 2017년 기준

- 대학은 종합대학과 우리나라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Faculty가 운영 중
  - 종합대학 : 프놈펜 왕립대학, 왕립법률경제대학, 국립경영대학 등
  - Faculty : 법률·경영·의학·약학·공학 등 각 분야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대학 수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

## 3. 치안

- 최근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 강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캄보디아 여행 시 주의 필요
- 체류 시 유의사항
  - 야간에는 외출을 삼가고 개별 행동 자제(호객 행위를 하거나 심야시간대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 특특 탑승 삼가)

- 외출 시에는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고,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머무르고 있는 장소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될 시, 즉시 해당 장소 이탈
- 집회, 시위, 정치적 성격의 회의 장소에 접근 삼가
- 소매치기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고액권 화폐 과시 삼가
- AIDS 보균자가 많으므로 유흥업소 출입 삼가
- 경찰복이나 헌병 복장을 한 무장 강도에게 폭행과 금품 탈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차량 탑승 후, 차량 문 및 창문은 항상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
- 편도 1차선에서 저속 차량(대형 화물트럭 등)에 대해 무리한 추월 시도 자제(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 사고 위험 다대)
- 심야시간대 지방을 이동하는 차량 운전 및 버스 이용은 자제

## 4. 교통 및 통신

- 교통수단
  - 최근에는 스마트폰 택시 어플리케이션(Grab, PassApp 등)이 다수 생겼으며,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도에 표시하여 별도의 설명 없이 택시 이용이 가능하고 거리별 요금이 계산되어 가격 흥정이 필요 없는 이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
  - 프놈펜 시내 주요 교통수단으로 모토뚝(오토바이), 툽툽(오토바이 개량차), 택시, 시내버스가 있음.

- 모토뚝(오토바이) :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뒤에 앉아서 이동. 가격이 저렴하고 빠르나 사고 위험성 높음
- 툭툭(오토바이 개량차) : 오토바이 뒤에 탈것을 끄는 형태로 4명 정도 탑승 가능하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
- 택시 : 스마트폰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로 사용하며 툭툭에 비해 약간 높은 가격
- 시내버스 : 프놈펜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7호선까지 생겼으며 신차량 도입 및 배차 시간 축소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 가격이 저렴하나 아직까지는 긴 배차 시간과 노선 부족으로 약간 불편
- 지방 이동 교통수단 :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시외버스 및 란뜨리 (승합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

- 통신(전화)

- 유선보다는 무선이 더 발달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요금은 저렴한 편
- 5개 정도의 통신사들 중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며 LTE 서비스를 제공하나 한국보다는 저속
- 휴대전화는 SIM 카드를 사용하는 GSM 방식으로 보통 선불 요금제 사용

- 우편제도

- 보통우편의 경우 국내 수·발송에 약 2~3주가 소요되며, 간혹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발생
- 분실 위험에 대비하여 중요한 우편물일 경우에는 EMS·DHL 등 속달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EMS의 경우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 함.



## 5. 언론

- 현지 TV 채널
  - TVK(국영), CTN, Bayon TV, APSARA, TV3, TV9, Heangmeas TV 등 다수 TV 채널이 있으며, 연예 중심 채널(CTN, Heangmeas TV, ETV)의 인기가 높은 편
- 위성안테나 설치 및 유료 케이블 TV를 통해 KBS World, YTN, 아리랑 TV를 비롯하여 CNN, NHK 등의 방송 채널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및 인근 동남아 국가 방송 등 다양한 채널 시청 가능
- 주요 신문
  - 영자 신문 : Khmer Times(일간), Phnom Penh Post(일간) 등
  - 현지어 신문 : Rasmey Kampuchea, Kampuchea Thmey, Koh Santepheap 등
- 주요 라디오 채널
  - Phnom Penh Radio FM 103, Women's Media Centre Radio FM 102, Bayon Radio FM 95, Beehive Radio FM 105, Voice of America, Radio Free Asia 등 (지역마다 주파수 다름)
- 주요 인터넷 매체
  - 캄보디아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젊은 층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

## 6. 보건

- 현지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의료 수준이 매우 낮아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 국가에서 치료받는 것이 일반적
  - 장티푸스·B형간염 등 예방 접종 필요
- 프놈펜 및 주요 관광지(시엠립 등)에는 말라리아가 거의 없으나, 밀림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말라리아 예방약(키니네) 구비 필요
- 풍토병 뎅기열 발생 가능
  - 뎅기열은 간헐적인 고열과 오한이 특징이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
- 다른 동남아 여행지와 마찬가지로 AIDS에 각별한 주의 필요

# VI

---

## 개발협력

---

- 
1. 개 관
  2. 연 혁
  3. 개발협력 실행 계획
  4. 주요 원조공여국  
지원 동향

## 1. 개 관

- 캄보디아 정부는 1990년대 초반 유엔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설립되었으며, 이후 세계은행, IBRD, IMF, ADB 등 국제금융기구(IFIs), 일본·미국·프랑스·호주 등의 유·무상 원조 및 기술 지원으로 국가 재건 추진
  - 1992-2013년 캄보디아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 총액은 약 150억 달러에 이르며, 연간 지원 규모가 2004년 5.5억 달러에서 2015년 13억 달러 (추정)로 2배 이상 증가
- 캄보디아는 정부 예산의 30~40%가 외국 원조일 정도로 원조 의존도가 높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GDP 대 원조 비율은 2005년 이후 10% 미만을 유지하다 2017년에는 6%대로 하락
-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 외에 1,300개 이상의 NGO가 지방 단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NGO의 연간 기여액도 2012년 이래 2억 달러 이상을 현재까지 유지

## 2. 연혁

- 1992년 6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of Cambodia)’에서 주요 원조공여국 및 국제금융기구들이 1992~1993년간 약 8.8억 달러 지원을 공약
- 1993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재건·복구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of Cambodia, ICORC)’ 제1차 회의에서 1992~1993년간 캄보디아 지원금을 총 1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공약하였으며, 이후 1995년까지 총 세 차례 ICORC 회의 개최
  - 제1차 ICORC 회의(1993.9., 파리) : 10억 달러 지원 공약
  - 제2차 ICORC 회의(1994.3., 도쿄) : 7.7억 달러 지원 공약
  - 제3차 ICORC 회의(1995.3., 파리) : 5.2억 달러 지원 공약
- 1996년부터는 ICORC 대신 ‘캄보디아 원조공여국(Consultative Group for Cambodia, CG)’ 회의로, 제8차 회의까지 개최
  - 제1차 CG 회의(1996.7., 도쿄) : 5.01억 달러 지원 공약
  - 제2차 CG 회의(1997.7., 파리) : 4.50억 달러 지원 공약
  - 제3차 CG 회의(1999.2., 도쿄) : 4.71억 달러 지원 공약
  - 제4차 CG 회의(2000.5., 파리) : 5.48억 달러 지원 공약
  - 제5차 CG 회의(2001.6., 도쿄) : 5.56억 달러 지원 공약
  - 제6차 CG 회의(2002.6., 프놈펜) : 6.35억 달러 지원 공약
  - 제7차 CG 회의(2004.12., 프놈펜) : 5.04억 달러 지원 공약
  - 제8차 CG 회의(2006.3., 프놈펜) : 6.01억 달러 지원 공약
- 2007년부터는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Cambod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CDCF) 개최

- 제1차 CDCF(2007.6., 프놈펜) : 6.9억 달러 지원 공약
- 제2차 CDCF(2008.12., 프놈펜) : 9.51억 달러 지원 공약
- 제3차 CDCF(2010.6., 프놈펜) : 11억 달러 지원 공약
- 2011년 캄보디아 정부의 CDCF 연기 발표 이후 지금까지 미개최

### 3. 개발협력 실행 계획

- 캄보디아 정부는 2019-2023년 개발협력파트너십(DCPS)을 수립하여 사각전략(2019~2023) 중 개발협력 분야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

#### 가. DCPS의 기본 및 전략 목표

- 모든 외부 원조가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개발 전략 틀 내에서 추진되도록 유도하며 대외 원조 유치 노력 필요
  - 주인의식(Ownership) : 모든 외부 원조 재원은 캄보디아 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유치되고 관리도록 함
  - 동반자 정신(Partnership) : 조율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 및 국내 시스템의 강화
  - 성과(Result) : 확고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상호 책임성 원칙을 통한 근거에 기반한 파트너십 강화

#### 나. DCPS의 이행 방안 및 원칙

- 외부 재원의 국내 예산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

- 통합 방안 수립 예정
- 2021년까지 통합 운영 추진
- 3개년 예산 계획인 ‘중기예산 틀’ 수립
- 각 부처의 공공재정관리 워킹그룹 및 기술 워킹그룹을 통해 추진
- 기술작업반(TWG) 운영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재건발전이사회가 전반적 조율을 담당하고, 각 부처별로 기술작업반 운영
- 공동 모니터링 지표 운영
  - 5년 주기 성과 도출, 1~3년 주기 산출 도출 체계 유지
- 분야별 다중이해 당사자 대화
  - 정부, 공여기관,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대화체 운영 추진
- 지방정부 파트너십 대화
  - 빈곤 완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성 고려
  -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정부 대화체 도입 추진
- 개발협력 파트너십 보고서
  - 운영 리뷰를 위한 도구로 활용
- ODA 및 NGO 원조 실적 데이터베이스
  -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서 운영 중
  - 대 캄보디아 원조의 모든 프로젝트 내용 접근 가능
- 각 원조 공여기관과의 협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또는 경제재정부의 주관으로 양자 간 원조협의회 추진
  - 경제재정부는 유상원조 제공기관 담당,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재건발전 이사회는 주로 무상원조 제공기관 담당

- 부산 파트너십
  - 캄보디아는 개발협력 효과성에 관한 글로벌파트너십(부산선언)에 적극 참여 중
  - 부산 정신인 주인의식, 성과,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은 캄보디아 개발협력 파트너십 전략에도 반영
- DCPS 이행을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업무분장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재건발전이사회 : 캄보디아 정부의 외부 재원에 대한 유치 및 조정 총괄 역할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투자이사회 : 정부-민간부문 포럼 역할
  - 경제재정부 : 유상원조, 예산 개혁 및 통합, 사각전략(RS4) 모니터링
  - 기획부 : 국가개발전략(NSDP), 캄보디아 SDGs, 공공투자 프로그램
  - 외교국제협력부 : 개발협력에 관한 공식 외교 채널
  -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기술작업반 및 분야별 다중 이해당사자 대화체, 지방정부 대화체 운영
  - 원조 공여기관 및 NGO : 각 원조사업이 사각전략에 일치되도록 유도

## 4. 주요 원조공여국 지원 동향

- 2018년도 캄보디아가 외부에서 받은 원조 총액은 총 13.5억 달러로, 이중 개발파트너(국제기구, 양자)가 85%, NGO가 15% 지원
  - 주요국 누적 원조액(백만 달러) : 중국(257.6), 일본(169.0), 프랑스(148.9), EU/EC(62.6), 한국(52.9), 미국(49.2), 호주(46.8) 순
  - 다자기구 누적 원조액(백만 달러) : ADB(164), UN(57.3), 세계은행(35.0) 순
  - ※ 총 262백만 달러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원조액이 급증하여 연 기준 최대 원조공여국 지위 차지
  - 2015년 3.5억 달러, 2016년 3억 달러, 2017년 3.1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2.5억 달러를 지원하여 일본의 1.3~1.6억 달러를 상회
  - 중국 원조의 대부분은 가시성이 큰 인프라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소 생산형 사업 기반의 유상원조
- 일본은 1992~2012년간 총 22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70%가 무상원조이고, 매년 1억 달러 이상 꾸준히 지원
- EU는 오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수원국의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형태의 원조를 진행하며, 2006~2015년간 총 4억 달러 공여
- 미국은 과거에는 평화 유지와 민주주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적극 진행했으나, 현재는 원조의 방향을 수원국 중심으로 변경하여 보건과 교육 분야 지원
  - 원조액은 연평균 6천만 달러로, 2006~2015년간 총 7.7억 달러 지원

## 최근 공여국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UN(core)	56.5	53.7	48.6	52.5	47.2	65.7	67.5	57.3
세계은행	73.8	66.0	35.5	50.6	17.6	17.5	31.4	35.1
ADB	126.9	82.0	171.4	129.8	137.2	118.2	131.4	164.5
GAVI	6.7	4.9	10.7	2.5	19.0	16.2	10.9	5.0
Global Fund	60.2	20.1	45.4	54.6	33.3	28.2	33.0	-
다자 지원 계	324.1	226.7	311.6	290.0	254.3	231.6	344.6	262.0
EU/EC	61.0	41.6	36.6	70.6	55.8	56.0	55.8	62.6
체코	0.0	0.0	0.0	1.2	1.2	1.3	1.2	0.4
프랑스	19.5	24.8	17.8	62.6	63.3	32.1	90.5	148.9
독일	43.7	44.6	34.4	28.9	25.8	46.9	38.3	38.6
아일랜드	0.7	0.3	1.2	0.7	0.6	0.6	0.7	0.7
스웨덴	28.6	30.2	33.8	41.1	21.8	30.1	33.7	26.7
영국	34.2	28.2	13.7	0.1	0.2	1.6	2.3	1.2
유럽국 소계	236.1	187.9	148.3	211.0	168.7	168.6	222.9	279.2
호주	78.2	79.5	59.3	66.2	55.9	51.9	58.1	46.8
캐나다	15.8	20.5	11.8	4.5	3.8	3.0	2.2	1.0
중국	332.0	460.7	436.6	343.0	339.4	307.2	313.2	257.7
일본	114.4	172.3	130.8	111.4	110.4	119.7	140.5	169.0
뉴질랜드	4.4	3.8	3.2	6.0	4.9	4.0	4.8	5.29
한국	45.3	46.2	50.1	77.9	61.7	34.2	56.2	52.9
스위스	4.5	4.3	7.8	11.8	13.0	15.8	14.6	12.9
미국	64.4	85.0	93.5	90.9	101.0	77.8	92.8	49.2
기타국 소계	661.8	872.3	793.1	711.7	690.1	613.8	682.5	595.0
NGO	200.7	212.3	225.9	231.3	237.7	250.3	211.3	236.8
총 계	1422.7	1499.2	1478.9	1444.0	1350.8	1278.7	1391.1	1373.1

# VII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기본 관계
2. 조약 체결 현황
3. 주요 인사 교류
4. 정치·외교 관계
5. 경제·통상 관계
6. 개발협력 관계
7. 영사·문화 관계

## 1. 기본 관계

### • 외교 관계 수립

- 1962. 7.11 주캄보디아 총영사관 개설 (총영사: 이택근)
- 1967. 1.13 주캄보디아 총영사관 철수
- 1970. 5.18 한·크메르 공식 외교 관계 수립
- 1970. 7. 1 주크메르 대표부 설치 (대표: 이택근)
- 1970. 8.15 주크메르 대사관 승격 (대사: 이택근)
- 1972. 2.25 김세원 대사 부임
- 1975. 4. 5 주크메르 대사관 철수, 외교 관계 중단
- 1996. 5.15 양국 간 대표부 설치 합의
- 1996. 9.18 주캄보디아 대표부 공식 업무 개시
- 1997.10.30 한·캄보디아 공식 외교 관계 재개
- 1998. 2.28 주캄보디아 대표부, 대사관으로 승격
- 2001. 4. 2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개설

### • 역대 주캄보디아 대사

- 1997. 11. 박경태 초대 대사
- 1999. 3. 김원태 제2대 대사
- 2001. 3. 이원형 제3대 대사
- 2003. 7. 이한곤 제4대 대사
- 2006. 3. 신현석 제5대 대사
- 2009. 3. 이경수 제6대 대사
- 2010.10. 장호진 제7대 대사

- 2012. 4. 김한수 제8대 대사
- 2015. 2. 김원진 제9대 대사
- 2018. 1. 오낙영 제10대 대사
- 2019. 10. 박홍경 제11대 대사

- 역대 주한 캄보디아 대사

- 2001. 4. Chheang Vun 초대 대사
- 2004.12. Lim Samkol 제2대 대사
- 2010. 8. Chan Ky Sim 제3대 대사
- 2014. 7. Suth Dina 제4대 대사
- 2016. 7. Long Dimanche 제5대 대사

## 2. 조약 체결 현황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무역 및 지불협정	1964.10.16	1964.12.8
문화협정 ※ 2006.8.24 신규 협정으로 대체	1973.1.29	1973.1.29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7.2.10	1997. 3.12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7.2.10.	1997.3.25
무상 기자재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1997.5.15	1997.5.1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2001.4.10	2001.4.10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2001.4.10	2001.5.10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1.11.8	2001.11.8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2001.11.29	2001.11.29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2.6.5	2002.6.5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02.11.6	2002.11.6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수자원개발사업)	2006.3.21	2006.3.21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2006.7.31	2006.8.24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지방행정 정보망 확충사업)	2006.11.20	2006.11.20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2006.11.20	2006.12.20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3번 국도 개보수 2차)	2007.5.8	2007.5.8

협정명	서명일	발효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2008.11.1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2008.12.30	2008.12.30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2009.6.4	2009.6.19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2009~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2009.10.22	2009.10.22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2009.11.29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10.10.17
범죄인 인도협정	2009.10.22	2011.10.1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2013.6.3	2013.6.3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3.7.10	2013.7.10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2014.6.2	2014.6.2
2016~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7.1.31	2017.1.31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7.1.31	2017.1.31
2019~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9.3.15	2019.3.15

### 3. 주요 인사 교류

#### 가. 우리 인사 캄보디아 방문

- 2000. 2. 전두환 전 대통령 (친선방문)
- 2002. 4. 양승택 정보통신장관
- 2002.11. 김석수 국무총리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및 공식방문)
- 2002.11. 이상철 정보통신장관
- 2003. 6. 윤영관 외교통상장관 (아세안 PMC 및 ARF)
- 2003. 9.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2004.10. 김원기 국회의장 공식방문
- 2005. 3. 이홍구 전 총리 및 한승수 전 외교장관
- 2006. 7. 반기문 외교장관 공식방문
- 2006.11. 노무현 대통령 국민방문
- 2007. 1. 이상수 노동장관
- 2007. 8. 노준형 정보통신장관
- 2009. 5. 송광호·최구식 의원 (대통령 특사)
- 2009.10. 이명박 대통령 국민방문
- 2011. 3. 한승수 대통령 특사
- 2011. 3. 박희태 국회의장 (비공식)
- 2012. 5. 이채필 고용노동장관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 2012. 7. 김성환 외교장관 (한-아세안, 아세안+3 ARF)

- 2012. 9.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2012.11.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3, 한·아세안, EAS 정상회의)
- 2013. 1. 하금열 대통령실장 (시하누크 국왕 조문 특사)
- 2015. 2. 김종덕 문화체육장관 (UNWTO UNESCO 세계문화관광회의)
- 2015. 5. 정의화 국회의장 공식방문
- 2019. 3.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 나. 캄보디아 인사 한국 방문

- 1996 . 7. Hun Sen 제2총리 공식방한
- 1999. 9. Veng Sereyvuth 관광장관
- 2001. 4. Hun Sen 총리 공식방한
- 2001.12. Norodom Ranariddh 국회의장 공식방한
- 2002. 2. Lim Kean Hor 수자원기상장관
- 2002. 5. Veng Sereyvuth 관광장관 (제15차 2002 세계박람회)
- 2002. 5. Cham Prasidh 상무장관(월드컵 개막식)
- 2003. 5. Neav Sithong 법무장관
- 2004. 3. Ith Samheng 노동장관
- 2004. 3. Mok Mareth 환경장관 (제8차 세계환경장관회의)
- 2004. 4. Veng Sereyvuth 관광장관 (제53차 PATA 연례총회)
- 2004. 5. Keat Chhon 재경장관 (제37차 ADB 연차총회)
- 2004. 6. Keat Chhon 재경장관 (2004 동아시아 경제장관회의)
- 2004. 6. Norodom Boppha Devi 문화예술장관 (양코르 문화유산 전시회 개막식)

- 2004. 8. Suy Sem 산업광물에너지장관
- 2004. 9. So Khun 정보통신장관 (2004 ITU 텔레콤 아시아 참석)
- 2004. 9. Ing Kantha Phavi 여성장관
- 2005. 2. Norodom Sirivudh 부총리 겸 공동내무장관
- 2005. 5. So Khun 정보통신장관 (제9차 아시아태평양 통신연맹회의)
- 2005. 5. Sok An 부총리 겸 관방장관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 2005. 5. Norodom Ranariddh 국회의장 (아시아정당회의 상임위원회)
- 2006. 3. Hun Sen 총리
- 2006. 9. Sok An 부총리 겸 관방장관 (제4차 아시아정당대회)
- 2007. 1. Reasmey 훈신팩당 당수 겸 부총리
- 2007. 8. Heng Samrin 국회의장 공식방한
- 2008. 2. Hun Sen 총리, Hor Namhong 외교장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 2008.10. So Khun 정보통신장관 (방송통신장관회의)
- 2008.11. Sar Kheng 부총리 겸 내무장관
- 2009. 1. Mok Mareth 환경장관
- 2009. 6. Hun Sen 총리 공식방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 2009. 8. Khieu Kan Harith 공보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
- 2010.10. Tram Iv Tek 공공사업교통장관
- 2011. 6. Mok Mareth 선임장관 겸 환경장관
- 2011.10. Hor Namhong 외교장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1.11. Ang Vong Vathana 법무장관 (아시아법제회의)

- 2012. 5. Cham Prasidh 선임장관 겸 상무장관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
- 2012. 6. Ang Vong Vathna 법무장관 (제2회 아시아 법제 포럼)
- 2012.10. Ith Sam Heng 사회보훈청소년갱생장관  
(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
- 2013. 6. Mok Mareth 선임장관 겸 환경장관  
(제3차 글로벌녹색성장서밋)
- 2013.11. Sirivudh Norodom 왕자
- 2014. 6. Yim Chhai Ly 부총리 (KOICA 주관 초청 연수)
- 2014. 9. Ith Sam Heng 노동직업훈련장관
- 2014.12. Hun Sen 총리 공식방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 2015. 5. Norodom Sirivudh 왕자
- 2015.10. Sok An 부총리 (경주 엑스포 참관)
- 2016. 5. Khieu Kanharith 정보통신장관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
- 2017. 4. Ith Sam Heng 노동직업훈련장관
- 2018. 4. Ith Sam Heng 노동직업훈련장관
- 2018.10. Phoeurng Sackona 문화예술장관
- 2018.10. Say Samal 환경장관
- 2019. 5. Sar Kheng 부총리 겸 내무장관

#### 다. 다자회의 계기 정상회담

- 1999.11.27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마닐라 아세안+3 계기)
- 2000.11.24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싱가포르 아세안+3 계기)

- 2001.11. 4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브루나이 아세안+3 계기)
- 2003.10.7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발리 아세안+3 계기)
- 2009. 6. 4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 2014.12.13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공식방한 계기)
- 2016. 7.15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ASEM 정상회의 계기)

## 4. 정치·외교 관계

### 가. 양국 관계 일반

- 한·캄보디아 양국 관계는 1997년 재수교 이래 단기간에 교역·투자·개발협력·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한 수준으로 발전
  - 2018년까지 한국은 캄보디아에 58억 달러 투자(신고 기준, 수출입은행), 캄보디아는 한국에 3,700만 달러(신고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 2018년 기준 한국은 30만여 명이 캄보디아 방문, 캄보디아는 3만 7천여 명이 한국 방문
  - 개발협력 분야는 교육·인프라·보건·농업개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무상 원조사업 긴밀하게 협력
  -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은 약 15,000명(공식집계: 11,969명), 한국 내 캄보디아 국민은 약 47,000명
- ※ 훈센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 내에서 직접투자, 관광, IT, 직업훈련, 문화교류, 금융, 건설 및 항공 등 8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

- 최근에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 IT, 금융, 관광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 다변화

#### 나. 지역 및 다자 외교무대 협력

-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유엔 및 산하기구, 여타 국제기구 진출 지원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2017~2019년 임기) 이사국 및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2017~2022년 임기) 선거에서 우리나라 지지 의사 표명
-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ARF 등 지역무대에서 협력

#### 다. 양국 의원 외교

- 양국 의원 및 의회 간 인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의회의 전산시스템 지원 등 양측 입법 및 정책 관련 정보 교류 지속
  - 정의화 국회의장(2015), 외통위 대표단(2015, 2018), 법사위 대표단(2018), 제27차 아태의회포럼 대표단(2019) 캄보디아 방문 등 의원 외교 활발히 진행 중
- 양국 내 각각 의원친선협회 구성, 활동 중

#### 라. 캄보디아 총선 지원

- 1998년 7월 캄보디아 2차 총선에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 직원(10명)으로 구성된 참관단 파견
- 2002년 2월 캄보디아 지방선거에 우리나라 참관단 2명 파견
  - 선거 투표함 운반용 트럭 3대 지원

- 2003년 7월 캄보디아 3차 총선에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와 외교통상부 직원으로 구성된 참관단 파견
  - 총 5만 달러 상당의 선거요원과 장비수송용 오토바이 지원
- 2008년 7월 캄보디아 4차 총선에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참관단 파견
- 2013년 7월 캄보디아 5차 총선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참관단 파견 및 민주당 의원 참관
-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7년 7월~2018년 7월간 KOICA 자문관 파견
  - 2018년 7월 6차 총선 시에는 별도 참관단 미파견

## 5. 경제·통상 관계

### 가. 교역

#### (1) 개요

-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998년 6,300만 달러에서 2018년 약 9억 8천만 달러로 20년간 15배 이상 증가

#### 한·캄보디아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654,419	652,765	572,963	603,846	661,159
수입	193,994	216,527	239,461	261,326	314,479
무역수지	460,425	436,238	333,502	342,520	346,680
교역 규모	848,413	869,292	812,424	865,172	975,638

출처: 한국무역협회

#### (2)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지난 2011~2012년에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였으나, 2016년에는 -12%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부터 다시 회복세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편직물, 화물자동차, 음료수, 의류, 알루미늄 등이며, 주요 10대 수출품의 수출액은 전체의 약 70% 차지

- 2019년에는 캄보디아 경기호황으로 인해 화물자동차·승용차의 수출이 급증하였고, 우리 가방업체 진출로 인해 기타 가죽의 수출도 급증

- 한-아세안 FTA 활용 범위 확대 및 농·가공 분야에 대한 우리 투자 진출 확대 시 양국 간 교역량의 증가는 물론 무역 불균형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

### 품목별 대 캄보디아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 목	2017		2018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편직물	118,630	-6.6	107,534	-9.4
2	화물자동차	69,673	22.6	82,533	18.5
3	음료	60,402	6.7	70,767	17.2
4	기타 섬유제품	42,436	-3.3	52,957	24.8
5	알루미늄조가공품	76,322	17.9	35,075	-54.0
6	기타 가죽	3,959	49.3	24,661	522.9
7	기타의 직물	15,687	68.9	22,041	40.5
8	화장품	11,125	18.5	17,490	57.2
9	승용차	8,952	-25.6	17,365	94.0
10	의약품	11,837	14.0	12,709	7.4
총 수출액		603,846	5.4	661,159	9.5

출처 : 한국무역협회

### (3)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서 봉제 완제품을 주로 수입하며(편직제 및 직물제 의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절반 차지), 그중 섬유제품은 한국 봉제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이 대부분
- 최근 우리 가방업체의 진출로 인해 기타 가죽 등 원부자재의 수출과 가방 완제품의 수입이 증가

#### 품목별 대 캄보디아 수입 현황

(단위: 천달러, %)

순위	품 목	2017		2018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편직제 의류	114,997	-1.2	126,811	10.3
2	직물제 의류	27,307	20.1	46,594	70.6
3	신발	23,916	20.1	33,307	39.3
4	제어용 케이블	27,498	12.1	31,873	15.9
5	가방	12,688	6.7	22,929	80.7
6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15,335	49.1	14,385	-6.2
7	주류	16,906	138.1	12,514	-26.0
8	취미오락기구	2,489	-12.2	3,818	53.4
9	기타 의료 위생용품	3,555	12.9	3,148	-11.5
10	천연고무	4,826	13.4	2,721	-43.6
총 수입액		261,326	9.0	314,478	20.3

출처: 한국무역협회

## 나. 투자 진출

### (1)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현황

-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는 2007~2008년 부동산 개발 활황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금융산업 및 봉제업체의 진출로 증가 추세  
※ 대부분의 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한 봉제·섬유·신발 관련 기업이며, 근래에는 금융업·부동산업 등 우리 기업의 진출 분야 다각화

####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현황

연도	신고 건수(건)	투자 금액(천 달러)
2012	239	95,505
2013	213	81,365
2014	176	64,509
2015	132	42,805
2016	170	215,221
2017	149	136,780
2018	106	243,513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1997~2018년간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투자 누적액은 신고 기준으로 3,262건, 약 58억 달러

##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진출 현황

업종 분류	2017			2018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제조업	49	27,853	27,729	23	23,631	21,357
금융 및 보험업	30	170,443	79,553	15	300,518	189,257
농/임/어업	8	10,617	10,009	2	1,820	5,360
부동산 및 임대업	6	16,250	4,110	19	5,940	4,377
도매 및 소매업	8	1,713	981	10	4,309	3,697
건설업	25	8,789	8,254	27	16,617	16,337
기타	23	7,183	6,143	10	3,183	3,128
합계	149	242,868	136,779	106	356,018	243,513

- 캄보디아에 투자한 다수의 우리 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한 봉제·섬유·신발 관련 기업
- 기타 우리 기업은 저임금 활용한 임가공 및 현지 지대 상승용 투자 또는 현지 금융시장 선점용 금융계 투자가 주종

## (2) 진출 형태

- 우리 업체가 캄보디아 투자 진출 시 과거에는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를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현지인과 합작투자 방식 증가 추세
- 또한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 투자 외에 자원활용형 농업 투자, 복합 리조트 건설, 주택단지 및 부동산 건설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

### (3) 투자 전망

-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등 긍정적 요인 점차 증가
  - 1994년 8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외국인투자법 채택 및 2003년 개정 투자법 제정
  - 최대 9년간 법인세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으로 상권 확대 전망
  - 미국·EU·일본·캐나다 등에서 GSP(일반특수관세제도) 수혜
  - 외국 정부 및 국제금융기구 지원 하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 반면 기업 활동 관련 법 체제 정비 및 집행력 미비, 자본·기술·인적자원 부족, 전력·운송·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 국내시장 규모 협소, 정부 관리의 행정능력 미흡 및 부패, 빈약한 정부 재정 등 저해 요인도 상존
- 캄보디아 내 우리 주요 진출 업체
  - 봉 제 : 한솔섬유, 좋은사람들, 인제가먼트, 가원어패럴 등
  - 금융계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전북은행 등
  - 건설계 : 롯데건설, 금호건설, 석우종합건설, 계룡건설, 부영 등
  - 가전/전자 : 삼성(직접 판매 X), LG(직접 판매 X), 경신 등
  - IT : 코사인(결재시스템), 모바일 씨앤씨(SW,교육) 등
  - 법률/회계 : 지평(법률), 우리회계(회계) 등
  - 기타 : 한화(조립), 현대종합상사(망고) 등

### 다. 인력 송출 현황

- 2002년 8월 신규 송출 국가로 지정되어 2006년까지 약 2,500명이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
- 2007년 외국인력도입제도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로 일원화

- 2006년 11월 20일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에 고용허가제 MOU 체결 이후 그 후속 작업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 TOPIK) 시행 위한 합의서 체결  
 ※ 고용허가제 : 양국 정부 간 체결된 MOU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과 건강검진을 통과한 캄보디아 인력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산하의 인력훈련 해외송출청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여 한국의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고용허가제 이후 캄보디아 근로자의 도입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부터는 7~8천여 명 수준
- 고용허가제 통한 근로계약 체결 후 우리나라에 송출된 캄보디아 근로자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만 7천 명

###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산업연수생제	기준	고용허가제
연수 1년 + 취업 2년	체류 가능 기간	취업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
민간기관 - 접수국 정부	도입·관리 주체	송출국 정부 - 접수국 정부
도입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사업체에 배정	연수생 선정	사업주가 인력풀에서 선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	노동권 보장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 보장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고용 제한	내국인 고용 기회 보장	7일간 내국인 우선 구인 노력

## 6. 개발협력 관계

### 가. 무상원조

#### (1) 개요

- 대 캄보디아 무상협력사업은 과거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 중심으로 소규모 지원 활동 시작
- 1997년 한·캄보디아 외교 관계 재개 후 무상협력사업이 대폭 증가하여 2001년부터 캄보디아는 우리의 무상원조 수원국 상위 10위권 계속 유지

####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지출액 기준)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총 지원액	337.96	63.85	72.53	69.50	57.32	71.54	672.29
무상	136.63	32.64	35.94	37.47	36.93	31.57	311.18
유상	201.32	31.21	36.59	32.02	20.39	39.56	361.09

출처 : OECD

- 2001년 11월 한·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각서 교환, 2003년 9월 캄보디아 KOICA 사무소 개설, 2009년 6월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에 이어 2013년 6월 연간 무상원조 기본약정에서 명, 보다 체계적인 무상협력사업 수행 체계 마련
- 캄보디아는 우리 제1기 및 제2기 ODA 중점 대상국 중 하나로, 2018년 말 기준 약 3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8억 달러 규모(송인액 기준)의 유상원조를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의 7위 원조국(2017년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 양국은 ‘한·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16-2020’을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4대 중점 지원 분야(① 교통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③ 교육 ④ 농촌 개발)에 집중 원조
  - 도로·댐·건설 등 경제 인프라와 교육·보건 분야의 사회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형 사업 및 다양한 기술협력사업(봉사단 파견, 국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통해 우리나라 개발 경험을 공유

## (2) KOICA 무상원조 실적

- 1991~2000년간 총 343만 달러의 비교적 소규모 무상원조를 제공 하였으나, 2001년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01~2009년간 연평균 547만 달러(1991~2009년 총 5,264만 달러), 2010년 이후로 매년 1천만 달러 이상 지원, 2012~2016년 2,000만 달러 규모까지 확대

### KOICA의 캄보디아 무상원조 현황

(단위 : 만 달러)

연도	1991~200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지원액	8,506	2,584	2,228	2,676	2,805	2,321	2,140	23,260

출처 : 수출입은행

- KOICA 외에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 등 개별 부처/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상 원조사업을 별도 시행 중
-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지원 사업은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협력 및 우리나라 개발 경험 공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적절히 활용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지원

- 최근 국제사회 및 주재국 정부의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방식(Program Based Approach) 지원 참여를 확대 중

## 나. 유상원조

### (1) 개요

- 2001년 4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 기본협정 체결 및 발효 이후, 2019년 10월 현재 총 24건의 사업 승인·진행(승인액 기준 8.9억 달러 규모)
  - 분야별로는 도로 등 교통 인프라(51.2%),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37.4%), 행정전산망 구축 등 공공행정(7.4%) 순
- 또한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캄보디아를 EDCF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했으며, 2008년 7월부터 신규 지원되는 최빈국 EDCF의 지원 금리를 0.01%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을 기존의 30년(거치기간 10년)에서 40년(거치기간 15년)으로 연장
- 2019년 3월에 체결한 7억 달러 규모의 '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에 따라 협력 진행 중

### 유상원조사업 현황

	사업명	연도	승인액
1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2001	20.0
2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02	27.7
3	캄포트-트라판로포 도로 개보수 사업	2002	17.1
4	크랑폰리강 수자원개발사업	2005	26.7
5	지방행정정보망 확충사업	2006	31.0
6	3번 국도 개보수사업(2차)	2006	36.9

	사업명	연도	승인액
7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사업	2008	30.0
8	국도 및 지방도로 개보수,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사업	2008	30.0
9	GMS 캄보디아 북서부도로 개선사업	2009	29.9
10	몽콜보레이댐 개발사업	2010	18.7
11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2010	21.0
12	캄보디아 21번 국도 개보수사업	2011	52.5
13	살라타온 댐 개발사업	2012	36.6
14	다운트리 댐 개발사업	2013	46.7
15	2번 22번 국도 개보수사업	2014	56.1
16	지방도로 개선사업 2차	2014	41.0
17	시엠립 하천정비사업 2차	2014	13.3
18	48번 국도 개보수사업	2014	67.4
19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사업	2016	85.1
20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2016	63.9
21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2016	2.5
22	21번 국도 개보수사업(보충용자)	2017	11.6
23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2018	66.6
24	지방도로 개선사업 3차	2019	60.0

## 7. 영사·문화 관계

### 가. 재외국민 현황

- 2007년까지 급속히 증가했던 캄보디아 거주 우리 재외국민 수는 미국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불황기를 겪으면서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 10월 기준 약 15,000명으로 추산
- 직업군별로 선교사, 봉제 및 건설업체 등 상사 직원, 식당업·관광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거주지별로 프놈펜 및 인근 지역에 약 11,000명, 시엠펙 및 인근 지역에 약 2,000명, 그 밖의 지역에 2,000명 정도 거주
- 특히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 선교 거점국가로 선교사 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단기 선교 목적의 방문자도 증가하는 추세  
 ※ 2006년 6월 캄보디아 종교부는 노상 선교 및 방문 전도 활동 등을 제한하는 부령 발령
- 재외국민 소식지  
 -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주간 캄푸치아, 라이프 플라자 등

### 재외국민 등록 현황

구분	인원 수	비중	합계
거주	2,180명	29.2%	7,474명
공공/상사 주재원	821명	11.0%	
자영업	1,351명	18.1%	
취업	1,102명	14.7%	
유학	102명	1.4%	
기타	1,918명	25.7%	

출처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2019년 10월 기준

## 나. 한인단체

- 재캄보디아 한인회 (회장 : 박현욱)
  - 창립 : 1996년 5월
  - 회원 : 10,000여 명
- 재캄보디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 이용만)
  - 창립 : 2007년 10월
  - 회원사 : 60개사
- 재캄보디아 한인 섬유협회 (회장 : 박정근)
  - 창립 : 1997년 6월
  - 회원사 : 59개사
- 재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회장 : 정진영)
  - 창립 : 1996년 2월
  - 회원 : 760여 명 (선교사협회 회원 등록 기준)
- 재캄보디아 농산업협회 (회장 : 신일형)
  - 창립 : 2011년 8월
  - 회원 : 30개사
- 재캄보디아 NGO협의회 (회장 : 김홍명)
  - 창립 : 2010년 8월
  - 회원 : 29개 단체
- 프놈펜 한글학교 (교장 : 안혜경)
  - 설립 : 1998년 1월
  - 학생 수 : 140여 명
-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교장 : 문창룡)
  - 설립 : 2019년 3월
  - 학생 수 : 18명

## 다. 관광 교류

- 2004년 한국인 12만 8,423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래 5년간 전체 외국인 방문객 1위 차지
- 2009년부터 베트남·중국·라오스의 캄보디아 방문객은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의 방문객 수는 2014년 이래 지속 감소하여 2018년 기준 한국은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4위

### 한국-캄보디아 인적교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캄보디아	411,491	435,009	424,424	395,259	357,194	345,081	301,770
캄보디아→한국	19,020	22,239	26,619	28,453	33,278	34,276	36,780

출처 : 캄보디아 관광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라. 문화·예술 교류

날짜	문화·예술 교류
2001. 4.	한-캄보디아 문화교류계획서 서명(2001~2002년간 예술·교육·영화 등 양국 간 문화교류 시행)
2001. 12.	한국 전통예술 공연단 방문 공연
2003. 11.	국악공연단 방문 공연 (동남아 지역 순회공연 일환)
2003. 11.	허트리오 캄보디아 방문 공연
2004. 6.	양코르와트 유물전시회 개최 (2004.6.29~9.12, 서울역사박물관) ※ 노로돔 라타나 데비 공주가 압사라 댄스 무용단과 함께 내한
2004. 8.	캄보디아 로열발레 방한 공연 (2004.8.31~9.5)

날짜	문화·예술 교류
2004. 11.	인천시립무용단, 한국 전통무용 공연 (아시아 순회공연의 일환)
2006. 9.	제1회 한국영화제 개최 ※ <서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말아톤>, <태극기 휘날리며> 상영
2006. 9.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06.11.21~2007.1.9, 시엠립) ※ 노무현 대통령 캄보디아 국민방문 (11.19~22)
2006. 12.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방문 공연 (시엠립 2회, 프놈펜 1회 공연)
2007. 2.	김해 시립 가야금 연주단 방문 공연
2007. 8.	타악 그룹 '공명' 방문 공연 (외교 관계 재개 10주년 기념 일환)
2007. 10.	제2회 한국영화제 개최 ※ <각설탕>, <엽기적인 그녀>, <국경의 남쪽>, <취화선> 상영
2007. 12.	베이비박스 공연
2007. 12.	강릉 단오제팀, 캄보디아 고대 전통춤 축제 참가
2008. 10.	제3회 한국영화제 개최 ※ <피아노 치는 대통령>, <플란다스의 개>, <식객>, <괴물> 상영
2008. 11.	경기도립전통무용단 공연
2009. 11.	제4회 한국영화제 개최 ※ <과속스캔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8월의 크리스마스> 상영
2010. 4.	2010년 문명의 자취 행사를 계기로 정동극장 무용단 전통 공연
2010. 10.	캄보디아 레인보우협회 주관, 한국음악가 초청 콘서트 개최 ※ 서울대 김인혜 교수, 연세대 유영욱 교수 등
2010. 11.	한국농수산식품무역협회 주관 한국 농수산식품 캄보디아 판촉전
2010. 12.	제6회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의 계기 우리 전통공연단 '축제의 땅' 판굿 공연
2010. 12.	제5회 한국영화제 개최 ※ <해운대>, <라디오스타>, <천년학>, <킹콩을 들다> 상영
2011. 1.	문화자선단체 <뷰티풀마인드> 자선공연

날짜	문화·예술 교류
2011. 2.	캄보디아 레인보우협회 주관, 제2회 한국 음악가 초청 콘서트 개최
2011. 5.	대사관, 캄보디아 레인보우협회 공동주관 왕실콘서트 개최 ※ 시하모니 국왕 및 왕실 관계자 등 참석
2011.10.	제6회 한국영화제 개최 ※ <국가대표>, <전우치>, <맨발의 꿈>, <애자> 상영
2011. 11.	국립국악원 방문 공연
2011. 12.	한식 홍보 행사 (Korea Food Festival)
2012. 2.	아시아오페라단 갈라콘서트 개최
2012. 11.	국립발레단 방문 공연
2013. 6.	2013 Quiz on Korea 캄보디아 지역 예선
2013. 7.	2013 K-Pop World Festival 캄보디아 지역 예선
2013. 10.	제7회 한국영화제 개최 ※ <7번방의 선물>, <아라한 장풍 대작전>, <헬로우 고스트>, <마당을 나온 암탉> 상영
2014. 5.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초청 공연 (사물놀이·B-boy·태권도)
2014. 6.	2014 Quiz on Korea 지역 예선
2014. 7.	2014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4. 10.	2014 한마음축제 개최
2014. 10.	한·캄보디아 '문화체육 교류의 날' 행사
2014. 10.	제8회 한국영화제 개최 ※ <늑대소년>, <고령화 가족>, <거인>, <괴물>, <광해> 상영
2015. 6.	2015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5. 6.	캄보디아-한국 친선 클래식 콘서트
2015. 6.	2015 Quiz on Korea 지역 예선
2015. 11.	제9회 한국영화제 개최 (이준익 감독 특별전) ※ <사도>, <왕의 남자>, <라디오스타>, <소원>, <즐거운 인생> 상영

날짜	문화·예술 교류
2015. 12.	2015 Korea Day for Cambodian Friends (한마음축제)
2016. 5.	국립발레단 초청 발레공연 ※ 시하모니 국왕 참석
2016. 10.	제10회 한국영화제 ※ <관상>, <도둑들>, <수상한 그녀>, <국제시장> 상영
2017. 3.	가수 비 콘서트 개최
2017. 6.	2017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7. 7.	2017 Quiz on Korea 캄보디아 지역 예선
2017. 9.	제11회 한국영화제 ※ <부산행>, <력키>, <검사외전>, <은밀하게 위대하게> 상영
2017. 10.	한-캄보디아 재수교 20주년 기념 정가악회 초청 국악 공연
2017. 11.	한-캄보디아 재수교 20주년 기념 한식 축제
2017. 12.	가수 CL(전 2NE1 멤버) 콘서트 개최
2018. 6.	2018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8. 7.	2018 Quiz on Korea 캄보디아 지역 예선
2018. 9.	2018 대사배 태권도 대회
2018. 9.	제12회 한국영화제 ※ <계춘할망>, <청년경찰>, <공조>, <조선명탐정 흡혈피마의 비밀>, <신과 함께 2-인과 연> 상영
2018. 10.	한식 홍보행사
2018. 11.	2018 Korea Cultural Festival 행사
2019. 1.	아시아문화위원회 출범 계기 문화 공연 행사
2019. 6.	2019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
2019. 6.	2019 대사배 태권도 대회

## 마. 스포츠 및 방송 협력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여자태권도 종목에서 첫 금메달 획득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태권도 인기 급상승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서 손 시브메이 선수가 아시안게임 출전 60년 만에 최초로 금메달 획득(2016년 리우 올림픽에 자력 출전했으나 메달 획득에는 실패)
  -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태권도 사범(1996~현재 : 최용석 사범)이 캄보디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 중
  - 현재 전국 50여 곳의 태권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략 1만여 명의 캄보디아인이 태권도 수련
  - 정기적인 태권도 용품 지원 및 매년 주캄보디아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중
- 캄보디아 프로축구 리그 12개 팀 중에 2018년 기준 8명의 한국 선수가 활약 중이며, 최근 한국 선수들의 캄보디아 진출 증가 추세
  - ※ 2010~2012년, 2013~2017년에 한국에서 파견된 이태훈 감독이 캄보디아 국가대표팀 감독 역임
- 그 외 한국에서 파견된 김수길 감독이 2014년부터 캄보디아 레슬링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 문체부가 정기적으로 레슬링 용품을 지원 중
- 2009년 10월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MOU 및 T-DMB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4편을 공동 제작했으며, 2009년 12월 T-DMB 시범방송 개시
- 2009년 이후 캄보디아 국영방송 TVK에 40만 달러 상당의 방송장비를 지원했으며, 2011년 5월 KBS 사장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KBS-TVK 협력 양해각서 서명
- 우리 영화진흥위원회는 2013년 5월 개관한 캄보디아 최초의 영화 촬영소에 230여 개의 조명 장비 기증(영화진흥위원장, 2013.4. 전달식 참석)

## 바. 한국어 및 한국학 진흥

- 캄보디아 내 대학에 한국학과 및 한국어 강좌 개설
  - 왕립프놈펜 대학 : 2007년 한국학과 개설, 학생 200여 명으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규모
  - 라이프 대학 : 2006년 한국어과 개설, 학생 40여 명
  - 바탐방 대학 : 2007년 한국어과 개설, 학생 40여 명
  - 반티민체이 대학 : 2008년 3월 한국어과 개설, 학생 60여 명
  - 앙코르 대학 : 2007년 비학위 한국어과 개설, 2015년 4년제 학위과정 신설
  -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 : 2005년 5월 개교, 전교생(3,000명)이 교양과목(1~2학년 필수, 3~4학년 선택)으로 한국어 수강
  - 그 외 프놈펜 왕립예술대학교, 캄땡참 농업대학교, 시엠립 교육대학 등에서 한국어를 교양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엠립 세종학당, 한-캄보디아 협력센터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 중
- 국립국제교육관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 한국어능력시험은 통상 연 3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1,031명, 2018년 1,091명, 2019년 1,177명이 응시하는 등 최근 증가 추세
  - ※ 이와는 별개로 산업연수생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도 매년 4~5만 명이 응시

## 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 2004년 7월 수원시-시엠립주 자매결연 체결
  - 2007년 시엠립 프놈크롬 마을을 수원마을로 지정 후 현재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지원사업 진행
  - 1단계 : 학교, 공동 화장실, 우물, 마을회관, 도로 등 건립
  - 2단계 : 취약계층 주민 일자리 창출, 유아보육센터 운영
  - 3단계 : 수원중·고등학교 건립, 기초 진료소 개소
  - 4단계 : 기술교육을 통한 소득 창출, 아동 교육권 보장 활동 전개

- 2008년 6월 충청남도-시엠립주 자매결연 체결
  - 시엠립 주지사 2010년 9월 세계대백제전(충남 부여) 참석, 충남지사 2011년 10월 시엠립주를 방문하여 중고 컴퓨터(100대) 기증
  - 2017년 10월 외국 지방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 진행
- 2008년 10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프놈펜시와 협력하여 프놈펜 시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대구경북문화센터(PGCT) 건립
- 2009년 6월 부산시-프놈펜시 자매결연 체결
  - 이후 부산시는 소방차량 양여, 프놈펜시 공무원 초청 연수 등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2010년부터 캄보디아 한글학교 운영 지원
  - 2010년 제1차, 2012년 제2차 전문인력 초청 환경기술 연수 프로그램 실시
- 2013년 11월 경기도 남양주시-캄퐁참주 자매결연 체결
  - 2016~2018년 캄퐁참주 공무원 농업기술 연수단 방한
  - 봉사단 파견 및 상호 교류 프로그램 운영
- 2019년 8월 경상북도, 캄보디아 국가 음원 제작 지원
  - 경상북도가 음원 제작비를 제공하고, 경북 도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캄보디아 왕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캄보디아 국가 음원을 50여 년 만에 새로 녹음

#### 아. 민간단체 교류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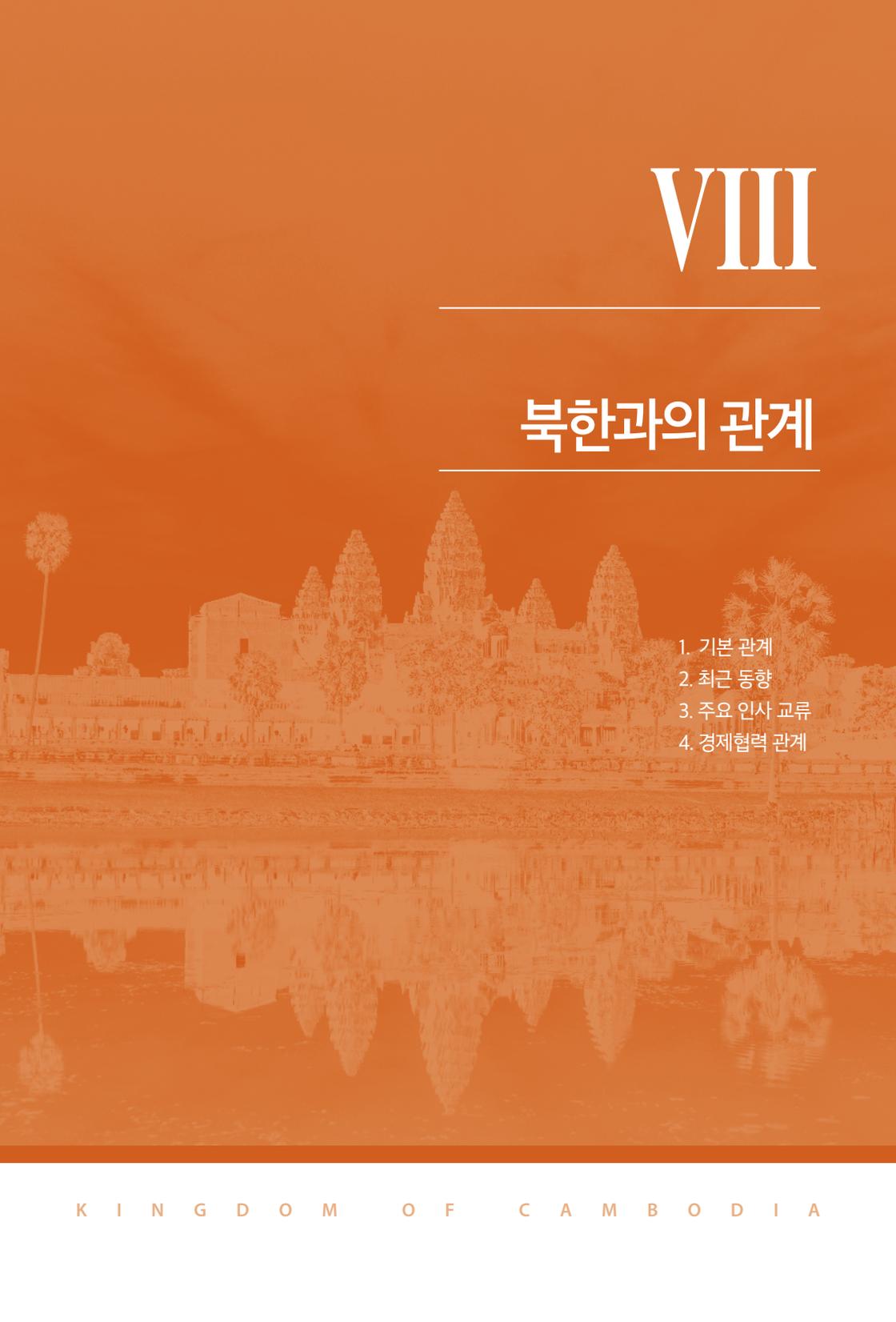
- 민간단체 다수가 캄보디아와 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캄보디아 한국 개발NGO협의회(회원기관 29개)가 결성되어 운영 중

# VIII

---

## 북한과의 관계

---

- 
1. 기본 관계
  2. 최근 동향
  3. 주요 인사 교류
  4. 경제협력 관계



## 2. 최근 동향

- 시하누크 전 국왕 사망 후, 시하누크-김일성 간 개인적 친분에 기초하여 왕실 중심으로 이어져 온 캄보디아-북한 관계가 점진적 축소 경향
-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한반도의 평화 위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비판 입장 견지 중
-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수년간 북한과의 고위급 인사 교류 자제
- 다만 캄보디아 부총리가 북한 정권 수립일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2018.9)하는 등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눈에 띄는 고위급 접촉은 없는 상황

### 3. 주요 인사 교류

날 짜	주요 인사 교류
2000. 7.29~31	백남순 외무상 캄보디아 방문 (방콕 ARF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2001. 7.17~21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캄보디아 방문
2002.12.14~17	호남홍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 북한 방문
2004. 4.	시하누크 국왕, 평양 방문 약 4개월간 체류
2004. 7.29~8.2	김영일 외무성 부상, 캄보디아 방문 ※ 캄보디아-북한 수교 40주년 계기 전통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2007.11.1~4	김영일 총리, 캄보디아 방문 ※ 인적교류 증진, 경제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논의
2010. 12.1~4	김영일 당 국제부장, 캄보디아 방문 (제6차 ICAPP 정기총회 참석차)
2011. 3.27~30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캄보디아 방문
2012. 6.4~6	호남홍 캄보디아 외교장관, 북한 방문
2012. 7. 1~16	박의춘 외무상, 캄보디아 방문
2012.10.20~2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캄보디아 방문 ※ 시하누크 전 국왕 조문 및 훈센 총리 예방
2015. 2. 3~5	리길성 외무성 부상 캄보디아 방문
2015.12.15	북한 최고인민회의대표단(안동춘 부의장) 캄보디아 방문 - 캄보디아 개최 제8차 아시아의회 회의 참석
2016.12. 1	북한 최고인민회의대표단(박명국 외무부상) 캄보디아 방문 - 캄보디아 개최 제9차 아시아의회 총회 참석
2018. 9.	호남홍 캄보디아 부총리, 북한정권수립기념일 계기 북한 방문

## 4. 경제협력 관계

### • 무역 규모

(단위 : 만 달러)

연도	대북 수출	대북 수입	총계
2012	49	0	49
2013	95	14	109
2014	68	30	98
2015	80	97	177
2016	188	15	203
2017	79	4	83

출처 : 캄보디아 상무부

### • 북한의 대 캄보디아 투자

-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 : 약 2,500만 달러(추정)
- 2011년 7월 착공, 2015년 12월 개관
- ※ 북한의 유일한 대 캄보디아 투자



---

# 부 록

---

-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2. 제6기 내각 명단
  3. 캄보디아 공휴일
  4.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5.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 가. 국왕

성명	<p>노로돔 시하모니 (His Majesty Preah Bat Samdech Preah Boromneath <u>Norodom Sihamoni</u>, King of Cambodia)</p>	
생년월일	1953년 5월 14일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1975 체코 체재(프라하 예술아카데미)</li> <li>• 1975~1976 북한 영화학교 수학</li> </ul>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1 프랑스 파리 Marius Petipa 예술학교 및 Gabriel Faure 예술학교 고전무용 교수</li> <li>• 1984 Ballet Deva 감독</li> <li>• 1990 크메르 영화사 감독</li> <li>• 1992~1993 최고국가평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 유엔 상주대표</li> <li>• 1993~2004 주UNESCO 대사</li> <li>• 2004 왕위 등극</li> </ul>	
가족관계	미혼	
방한경력	없음	
취미/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어·체코어가 유창하며, 영어와 러시아어도 구사 가능</li> <li>• 음악·무용·영화 등 예술 방면의 재능과 관심 다대</li> <li>• 1967년 시하누크 국왕이 직접 제작한 영화 &lt;어린 왕자&gt;에 왕자 역으로 출연</li> </ul>	

## 나. 총리

성명	<p>훈 센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p>	
생년월일	1951년 4월 4일	
출생지	Campong Cham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 하노이대학 명예박사</li> <li>• 1994 남가주대학 명예박사</li> <li>• 2006 순천향대 명예박사</li> <li>• 2009 우석대 명예박사, 고려대 정치학 명예박사</li> </ul>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9 캄보디아 국민군과 함께 크메르루즈 정권 전복 후 귀국, 외교장관 취임</li> <li>• 1981 부총리 겸 외교장관</li> <li>• 1985 총리 겸 외교장관</li> <li>• 1986 외교장관 겸임 사임 (총리직 전념 목적)</li> <li>• 1987 외교장관 겸임 복귀 (평화협상 시 역할 목적)</li> <li>• 1989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 입안 및 실행</li> <li>• 1991 시하누크-손산-크메르루즈와 파리평화협정 서명</li> <li>• 1993 총선 패배로 라나리드 왕자(제1총리)와 연정 구성, 제2총리 취임</li> <li>• 1998~ 2~6차 총선 승리 및 총리 취임</li> </ul>	
가족 관계	부인과 3남2녀	
방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 7. 제2총리 재직 시 방한</li> <li>• 2001. 4. 공식방한</li> <li>• 2006. 3. 공식방한</li> <li>• 2008. 2.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li> <li>• 2009. 6.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공식방한</li> <li>• 2014. 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공식방한</li> </ul>	
참고사항	골프, 배구, 축구, 체스, 독서, 작사·곡 등 취미 다양 김치 애호가	

## 다. 상원의장

성명	사이 춤 (Samdech Vibolsena Pheakdei <u>Say Chhum</u> )	
생년월일	1945년 2월 5일	
출생지	Campong Cham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놈펜 교육대학 교육학 졸업</li> <li>• 미국 국립대학 정치행정학 박사</li> </ul>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9~1984 캄보디아국민당본부 조직국장</li> <li>• 1983~1986 캄퐁스프주 주지사</li> <li>• 1986~1988 농업부 장관</li> <li>• 1988~1993 관방부</li> <li>• 1993~2012 캄퐁스프주 의원</li> <li>• 2008~2012 국회 제2부의장</li> <li>• 2012~2015 국회 제1부의장</li> <li>• 2015. 6. 상원의장, 국민당 부대표</li> </ul>	
가족 관계	부인과 1남1녀	
방한경력	없음	
참고사항	종교 : 불교	

## 라. 국회의장

성명	<p>헝 삼린 (Samdech Akka Moha Ponthea Chakrei <u>Heng Samrin</u>)</p>	
생년월일	1934년 5월 25일	
출생지	Campong Cham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노이 고위정치 훈련과정</li> <li>• 2009년 전주대학교 명예박사</li> </ul>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9 캄푸치아 인민혁명군 입대</li> <li>• 1970 캄푸치아 동부지역사령부 사령관</li> <li>• 1978.12. 캄푸치아 구원을 위한 연합전선 회장</li> <li>• 1979. 1.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의원</li> <li>• 1979. 1. 캄푸치아 인민혁명협의회 의장</li> <li>• 1981. 5. 국회의원, 캄푸치아 인민혁명당 중앙위 위원</li> <li>• 1981. 6.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국가평의회 회장</li> <li>• 1981.12. ▲캄푸치아 구원·방위를 위한 연합전선협의회 명예회장 ▲캄푸치아 인민혁명당 중앙위 총서기</li> <li>• 1985.10. 캄푸치아 인민혁명당 중앙위 총서기</li> <li>• 1993 ▲캄보디아국민당(CPP) 명예총재 ▲제1대 국회의원(간달) ▲캄보디아 국왕 고등자문관</li> <li>• 1998. 6. 제2대 국회의원(캄퐁참) / 국회 제1부의장</li> <li>• 2003. 6. 제3대 국회의원</li> <li>• 2004. 6. 국회 제1부의장(재선)</li> <li>• 2006. 3.~ 현재 국회의장</li> </ul>	
가족 관계	부인과 자녀 4명	
방한 경력	• 2007. 9. 공식방한	
참고사항	<p>취미 : 골프, 독서 종교 : 불교</p>	

## 마. 외교장관

성 명	쁘락 소콘 (Prak Sokhonn)	
생년월일	1954년 5월 3일	
출생지	Phnom Penh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학교 언론학 과정 수료</li> <li>• 1993 파리 공공행정국제연구소 수료</li> <li>• 2001 파리 외교전략학센터 수료</li> </ul>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6 국방신문 부편집장</li> <li>• 1993 국방부 대변인</li> <li>• 1993 총리 고문</li> <li>• 1999 주제네바대표부 대사</li> <li>• 2003 총리 고문</li> <li>• 2004 총리 고문 겸 국방부 차관</li> <li>• 2009 총리 직속 특임장관 겸 총리 고문</li> <li>• 2013 우정통신부 장관</li> <li>• 2016 선임장관 겸 외교장관</li> <li>• 2018~현재 부총리 겸 외교장관</li> </ul>	
방한 경력	• 1996 훈센 제2총리 최초 공식방한 시 수행	
가족 관계	부인과 자녀 3명	
구사 언어	크메르어, 프랑스어, 영어	
참고사항	군 서열 : 4성 장군	

## 2. 제6기 내각 명단

### 총 리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 (훈 센)

### 부총리

1	Sar Kheng (싸 켝)	내무장관 겸임
2	Bin Chhin (븐 찐)	관방장관 겸임
3	Tea Banh (띠어 반)	국방장관 겸임
4	Hor Namhong (호 남홍)	
5	Men Sam An (멘 삼 안)	대의회 관계/ 감찰부 장관 겸임
6	Yim Chhay Ly (임 차이 리)	
7	Ke Kim Yan (께 끄 량)	
8	Prak Sokhonn (쁘락 소콘)	외교장관 겸임
9	Aun Pom Moniroth (아운 폰 모니엇)	재경장관 겸임
10	Chea Sopara (찌어 소파라)	국토관리도시계획 건설장관 겸임

### 선임장관

1	Chhay Than (차이 턴)	기획부
2	Pol Sareun (폴 사룬)	(특임)
3	Kun Kim (꾼 킴)	(특임)
4	Mea Sophea (미아 소피아)	(특임)
5	Cham Prasidh (찜 뿌라싯)	산업수공업장관
6	Nhim Vanda (님 반다)	(특임)

선임장관		
7	Khun Haing (쿤 항)	(특임)
8	Ly Thuch (리 툃트)	(특임)
9	Heum Chaem (흠 차엠)	
10	Sun Chanthol (순 찬톨)	공공사업교통장관
11	Om Yentieng (옴 엔티엥)	(특임)
12	leang Mouly (아응 몰리)	(특임)
13	Var Kimhong (바 김홍)	(특임)
14	Yim Nolla (임 놀라)	(특임)
15	Chin Bunsean (찐 분시은)	(특임)
16	Ho Sithi (호 시티)	(특임)
17	Osman Hassan (오스만 핫산)	(특임)
각 부 장관		
1	관방부(Council of Ministers)	Bin Chhin (빈 친)
2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Sar Kheng (싸 켝)
3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ea Banh (띠어 반)
4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ak Sokhonn (쁘락 소콘)
5	경제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un Porn Moniroth (아운 폰 모니룣)
6	농림수산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Veng Sakhon (벵 사콘)
7	농촌개발부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Ouk Rabun (옥 라분)

## 각 부 장관

8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Pan Sorasak (판 쏘라삭)
9	산업수공업부 (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s)	Cham Prasidh (쩜 뿌러션)
10	광물에너지부 (Ministry of Mines and Energy)	Suy Sem (수이 사엠)
11	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Chhay Than (차이 툐)
12	교육청소년체육부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Hang Chuon Naron (항 쯔 나론)
13	사회보훈청소년갱생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Veteran and Youth Rehabilitation)	Vong Sauth (봉 소웃)
14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hea Sophara (찌어 소파라)
15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Say Sam Al (싸이 삼 알)
16	수자원기상부 (Ministry of Water Resource and Meteorology)	Lim Keanhor (림 깐호아)
17	공보부 (Ministry of Information)	Khieu Kanharith (키유 깐나릿)
18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Ang Vong Vathana (앙 봉 바타나)
19	대의회관계/감찰부 (Ministry of National Assembly- Senate Relations and Inspection)	Men Sam An (멘 삼 안)
20	정보통신부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	Tram Iv Tek (뜨람 이우 툽)
21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Mam Bunheng (몸 분헝)

## 각 부 장관

22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Sun Chanthol (순 찬톨)
23	문화예술부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Phoeung Sakona (프응 싸코나)
24	관광부 (Ministry of Tourism)	Thong Khon (타웅 콘)
25	종교부 (Ministry of Cults and Religions)	Him Chhem (흠 차엠)
26	여성부 (Ministry of Women's Affairs)	Ing Kantha Phavi (응 칸타 파비)
27	노동직업훈련부 (Ministry of Labor and Vocational Training)	Ith Samheng (잇 섬헝)
28	인사부 (Ministry of Civil Service)	Pich Bun Thin (핏 분 틴)
29	민간항공사무처 (State Secretariat of Civil Aviation)	Maeu Havannal 마이 하반날
1	총리 직속 특임장관 (Ministers Delegate Attached to PM)	Sok Chenda Sophea (쏭 첸다 소피아)
2		Mam Sarin (몸 사린)
3		Sry Thamarong (쓰리 탐롱)
4		Chhieng Yanara (찌응 얀나라)
5		You Sunlong (유 선롱)
6		Som Soeurn (싸움 쓰은)
7		Sun Kunthor (순 곤토)
8		Zhakary Adam (자카리아 아담)
9		Kao Kim Hourn (카오 킴 혼)

## 각 부 장관

10	총리 직속 특임장관 (Ministers Delegate Attached to PM)	Uch Kim An (웃 김언)
11		Keo Remy (께오 레미)
12		Svay Sitha (스와이 시타)
13		Phay Sipha (파이 시판)
14		Keo Rattanak (께오 라타나)
15		Hun Sitha (훈 시타)
16		Chhim Phal Virun (츰 펄비룬)
17		Norinarith Anandayat (노라나릿 안다얏)
18		Hary Sam At (하리 섬앗)
19		Keo Ba Phnom (께오 바프놈)

### 3. 캄보디아 공휴일 (2019년 기준, 매년 다소 상이)

날짜	캄보디아 공휴일
1. 1(화)	신년
1. 7(월)	학살 정권에 대한 승리의 날
2.19(화)	불교 축일(Meak Bochea Day)
3. 8(금)	국제 여성의 날
4.14(일)~16(화)	캄보디아 신년
5. 1(수)	노동절
5.13(월)~15(수)	시하모니 국왕 탄생일
5.18(토)	석가 탄신/서거일
5.20(월)	크메르 정권 학살 피해자 애도의 날
5.22(수)	왕실 농경의 날
6. 1(토)	국제 어린이날
6.18(화)	모니엇 대비 탄생일
9.24(화)	제헌절
9.27(금)~29(일)	캄보디아 추석
10.15(화)	시하누크 선왕 서거일
10.23(수)	파리 평화협정 기념일
10.29(화)	시하모니 국왕 즉위 기념일
11. 9(토)	독립기념일
11.10(일)~12(화)	물 축제
12.10(화)	국제 인권의 날



## 4.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Phum No.14, Sangkat Tonle Bassac, Khan Chamkarmon, Phnom Penh, P. O. Box 2433, Kingdom of Cambodia
전화	(+855-23)211-900~3
팩스	(+855-23)219-200
시차	-2시간 (우리나라보다 두 시간 늦음)



## 5.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20길 12
전화	(02)3785-1041
근무시간	9:00-17:00 (월~금)

## 캄보디아 개황

---

-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처 외교부 동남아2과  
편집디자인 나무와숲(02-3474-1114)  
인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ISSN 2005-4017

※ 이 책의 내용은 <http://www.mofa.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73-14

ISSN 2005-4017

